20 대학내일

No.843 2018.3.19~2018.3.25
ISSN 2465-7883

SPECIAL
2018 나랏돈 사용법
세 명만 모이면 모임비 100만원?
장소도 제공받고 콘텐츠 제작비도
지원받을 수 있다규

COVER MODEL
밴드 HONEYST

+

#댕댈대숲 #고정관념
여자는 매력 남자는 실력?

을의 하루 '방송작가' 편
연예인이랑 짱친 가능?
놉, 이 구역의 슈퍼 을 가능!

캠퍼스 TMI '홍익대' 편
읽다 보면 시간 순삭되는
캠퍼스 알쓸신잡

LOHBS

롭스에서 열정 가득한 당신의 아이디어를 기다립니다.

브랜드영상 공모전

주 제 **롭스 브랜드 영상 부문 (10~30초 분량)**

> Everyday Real Beauty Life 매일 만나도 즐거운 롭스

롭스 UCC 영상 부문 (자유 분량)

> 롭스에 관련된 자유 주제

작품규격 1440X1080 또는 1280X720 pixel (mp4, avi 포맷)

시상내역 대상 : 1천만원 (1명)
금상 : 300만원 (2명) / 동상 : 50만원 (4명) / 입선 : 롭스 상품권 10만원권 (10명)

응모자격 대한민국 국민 누구나

응모기간 2018년 3월 12일 ~ 4월 30일까지

자세한 내용은 롭스 APP 및 롭스 블로그를 참고하세요

아무 맥주 벗고 피츠 질러

이번 엠티에는,

피~츠 주세요

대한민국 맥주를 새롭게!
수퍼클리어 피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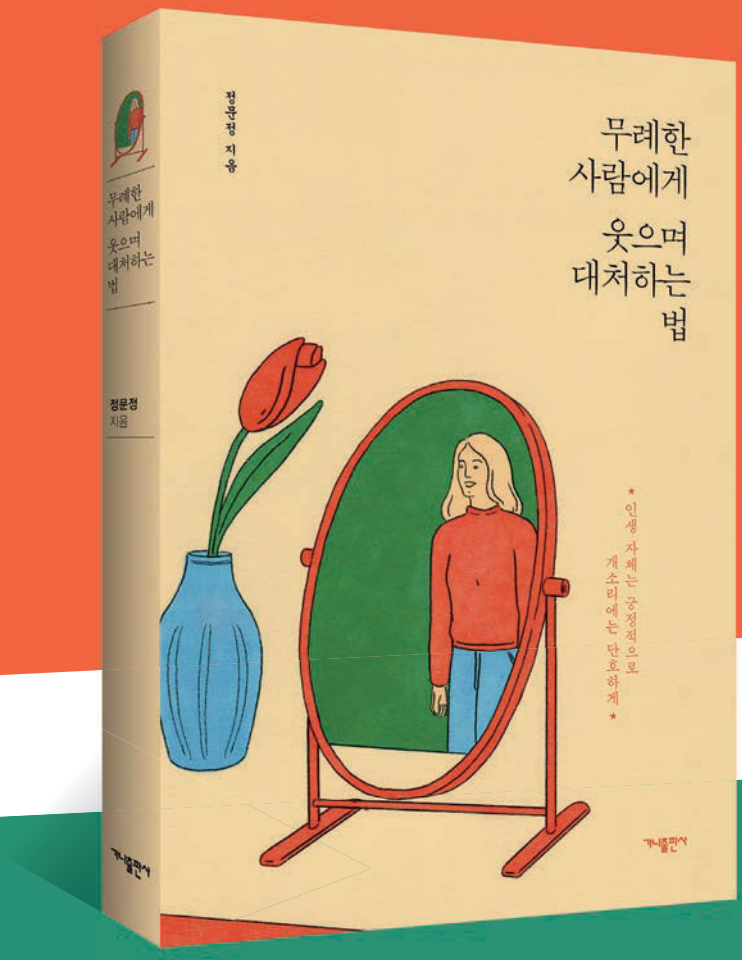
물 타지 않아 끝까지 깔끔하다

피츠 수퍼클리어

경고 : 지나친 음주는 뇌졸중, 기억력 손상이나 치매를 유발합니다. 임신 중 음주는 기형아 출생 위험을 높입니다.

좋게좋게 넘어가지 않아야 좋은 세상이 온다!

갑자기 선을 (훅) 넘는 사람들에게
감정의 동요 없이 **"금 밟으셨어요"** 하고
알려줄 방법은 없을까?



무례한 사람에게 웃으며 대처하는 법
정문정 지음 | 264쪽 | 13,800원

★★★
교보문고, 예스24
알라딘, 인터파크
종합 베스트셀러
1위

★정문정★ 작가와의 만남

★ 3/24(토) 오후 3시 영풍문고(종각점)
★ 4/09(월) 오후 7시 30분 북바이북(상암점)
★ 4/25(수) 오후 7시 코엑스 별마당 도서관

☎ 문의: 070-4398-2219

가나출판사

맨날 똑같은 마케팅 공모전 지겹지 않니?

이젠, 실전 세일즈다!

제 1회 기아자동차 세일즈 공모전 K- 서포터즈

응모자격
전국 대학/대학원생
*개인 혹은 팀 단위 가능하며, 팀은 최대 4인

접수기간
2018. 3. 5 (월) ~ 2018. 4. 3 (화)

발표일정
2018. 4. 23 (월), 개별 통보

공모주제
기아자동차 판매를 증대시킬 수 있는 아이디어 4가지 中 택1

자동차 구매프로그램	쉽고 알차게 우리차를 구매하는 방법은? (할부, 리스, 렌트, 배터리평생보증 등)
이종업체간 제휴 (콜라보레이션)	자동차는 딱딱하고 재미없는 제조업? 새로운 조합을 만들어볼까?
고객 체험강화	더 많은 고객이 우리차를 체험하는 방법! (부담제로 전시장 방문, 시승이벤트 등)
기아자동차 재구매 유도	평생 우리차만 사게할 순 없을까? (기아자동차 평생고객 만들기 등)

평가기준
참신성 30% + 실현가능성 30% + 판매기여도 40%

접수방법
온라인 지원 (bit.ly/K-서포터즈지원서)

제출규격
파워포인트 30매 이내 자유롭게 작성,
전체 요약 1페이지 필수 (ppt, pdf파일)

수상혜택
총 7팀, 총 상금 700만원

구분	장학금 지원	
대상	1팀	300만원
최우수상	2팀	100만원
우수상	4팀	50만원
⊕ 멘토링	수상팀 대상 기아자동차 현업선배들의 멘토링 제공	

* 장학금 제세공과금 당사 부담
* 공모전 응모작의 저작권은 당사에 귀속됩니다

문의처
운영사무국 02-735-6199

공모전이 끝나더라도 아이디어 페스티벌은 계속됩니다

상시 아이디어 공모 접수 (k-sales@kia.com)

시 상 : 우수 아이디어 채택시 50만원 장학금 지원

KIA
The Power to Surprise

EDITOR
김신지 summer@univ.me

PHOTOGRAPHER
박시열

HAIR
박옥재 @RUE710

MAKEUP
한아름 @RUE710

STYLIST
윤현지, 박교희

모집대상

경기도에 거주하고 있는 청년층 (만 15~34세)

필수요건

1. 1984.1. 1.부터 2002.12. 31.이내 출생한 자
2. 주민등록상 주소지가 경기도인 자
3. 문화콘텐츠 및 IT융합콘텐츠 분야 예비창업자
4. 사업자 및 재학생, 재직자 제외
   ※ 고용보험 상실 필수, 사업자등록증 미소지자
   ※ 대학원생, 휴학생 절대불가
5. 재학생은 부득이한 경우 제한적으로 허용(후순위)
   ※ 고교: 3학년 재학생, 학교장 확인서 必 (대학진학 희망자 제외)
   ※ 대학: 4년제 4학년 1학기, 2년제 2학년 1학기 이수 必

모집분야

문화콘텐츠 및 IT융합콘텐츠 분야

ICT융합, 출판, 만화, 콘텐츠창작, 애니메이션, 게임, 미디어 아트, VR/AR, 만화, 캐릭터, 공연, 지식정보, 디자인, 스토리텔링, 제조융합 등

경기콘텐츠진흥원 북부·서부·판교 센터
특화사업 분야 우선적으로 지원

클러스터센터	특화사업 분야
북부 경기문화창조허브 (의정부)	디자인(패션/가구/피혁), 스토리텔링, 제조·융합 등
서부 경기문화창조허브 (시흥)	메이커, 제조, 로봇 등
판교 경기문화창조허브 (성남)	콘텐츠창작 및 SW, ICT융합콘텐츠, 게임 등

접수방법

청년창업2030.kr에서 신청서식 다운 후

이메일 접수

smart2030@gdca.or.kr

지원내용

● 창업교육 : 총 60시간
- 각 분야별 그룹별 전담 엑셀러레이터 지정
- 현장 밀착형 컨설팅과 멘토링 지원

창업기본교육(20시간) + 컨설팅 및 멘토링(40시 간)

● 창업자금 : 총 6억 6천만원

정부지원금(70%) + 창업자의무부담금(30%현금)

- (제조) 최대 2,050만원, (비제조) 최대 1,500만원

문의처 | 031-776-4608, 4621, 4622

SEO DONG SUNG

서동성

LEADER, BASS, VOCAL

01

2017년 봄에 싱글 '반하겠어'로 데뷔하며 활동을 시작했어요. 막상 데뷔를 하니 어떤 점들이 좋았고 또 힘들었는지 궁금해요.

동성 저희 노래를 들려드릴 수 있다는 게 가장 좋았어요. 연습생 때와는 다른 생활이 너무 행복했습니다. 한편으로는 스스로 책임져야 할 일들이 많이 생겨서 열심히 적응하며 공부하고 있는 중이기도 하고요.

철민 제가 직접 쓰고 또 녹음한 곡들이 서서히 사람들에게 알려진다는 게 뿌듯했어요. 그럴수록 결과에 겸손해지자 생각도 했고요.

환 데뷔 전부터 클럽 공연을 많이 다녔는데, 데뷔 후에는 팬분들도 관객분들도 더 많이 와주시니 공연이 한층 더 재미있어졌어요. 이젠 저희 색깔을 좀더 확고히 잡아야 하는 만큼, 공연에서 변화된 모습을 보여드리기 위해 많이 고민하고 연구하고 있어요.

승석 저도 더 많은 관객 앞에서 공연할 수 있게 된 게 좋았어요! 하지만 데뷔하고 가장 어려웠던 것은 아무래도 표정이나 제스처를 멋지게 하는 거…(모두 웃음)

02

허니스트는 허니(HONEY)와 아티스트(ARTIST)를 합친 이름이라 들었는데요. 혹시 다른 후보도 있었나요?

철민 있었어요, 볼케이노! 화산처럼 치솟는 밴드가 되라고. 하지만 당시 모 브랜드 치킨 이미지와 겹치면서 다행히 폐기되었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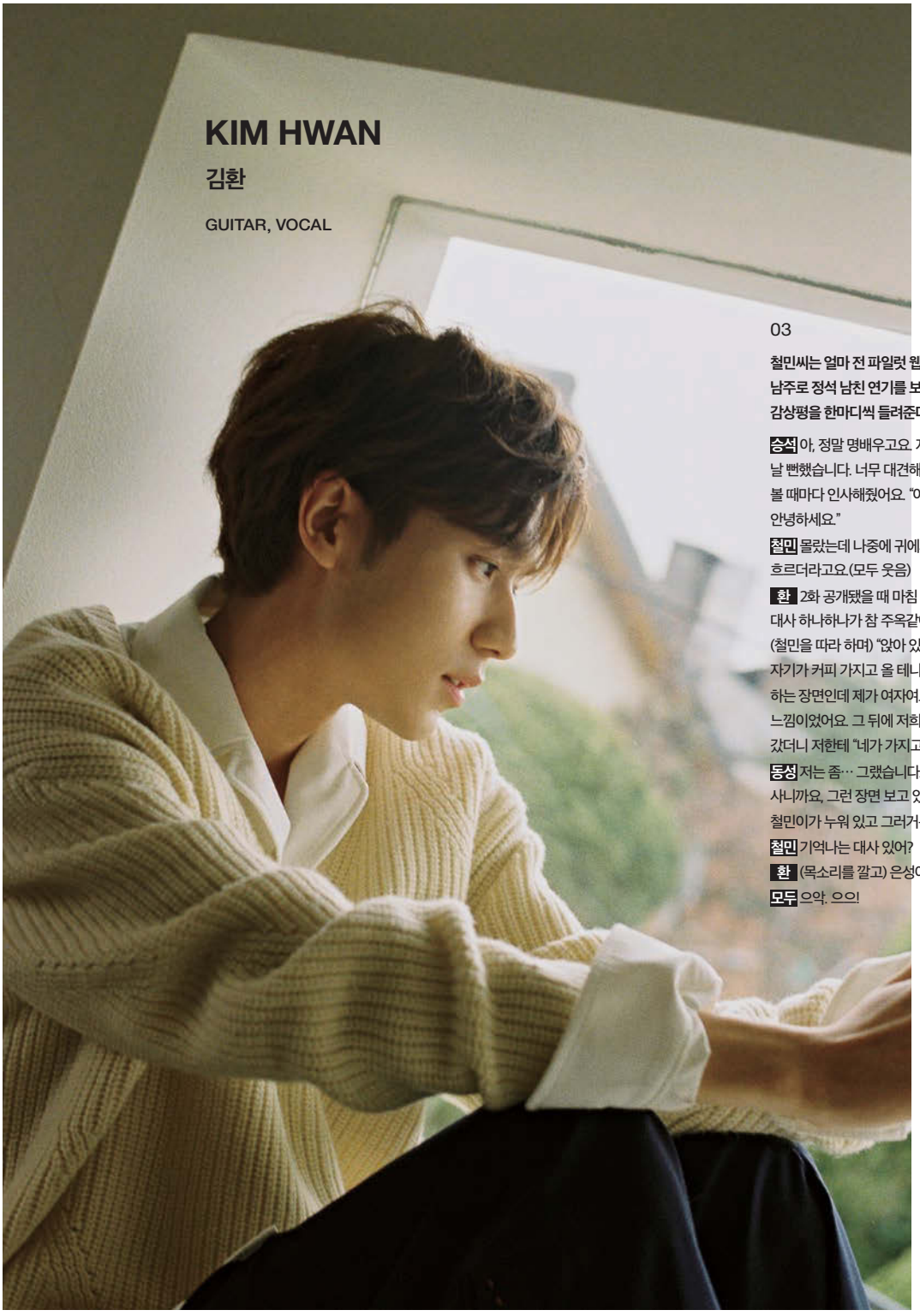
환 (부끄러워하며) '포 웨이브'도 있었어요. 네 개의 파도. 누가 지었는지 모르겠어요. 의미를 너무 넣으려고 해서 문제예요….

동성 이상한 물고기 이름도 있었는데… 아, 닥터 피시! (모두 폭소) 사람들의 아픈 마음을 힐링해주자, 뭐 그런 뜻이었겠죠.

승석 닥터 피시는 그냥 각질 먹는 건데….

철민 확실한 건 그중에 허니스트가 제일 나았어요.

승석 왜, 볼케이노도 괜찮았을 거 같은데. 볼케이노, 대학내일에 뜨다! 용암처럼 뜨거운 남자들! (모두 웃음)



KIM HWAN

김환

GUITAR, VOCAL

03

철민씨는 얼마 전 파일럿 웹드라마 <한입만>의 남주로 정석 남친 연기를 보여주었는데요. 다들 감상평을 한마디씩 들려준다면요?

승섭 아, 정말 명배우고요. 저는 보면서 눈물이 날 뻔했습니다. 너무 대견해서. 그 후로 철민이 볼 때마다 인사해줬어요. "아, 김 배우님. 안녕하세요."

철민 몰랐는데 나중에 귀에서 피가 흐르더라고요.(모두 웃음)

환 2화 공개됐을 때 마침 같이 봤는데요. 대사 하나하나가 참 주옥같아서.(※발음 주의) (철민을 따라 하며) "앉아 있어." 여자친구한테 자기가 커피 가지고 올 테니 앉아 있으라고 하는 장면인데 제가 여자여도 반할 거 같은 느낌이었어요. 그 뒤에 저희끼리 커피 마시러 갔더니 저한테 "네가 가지고 와" 했지만요….

동성 저는 좀… 그랬습니다.(웃음) 저희가 같이 사니까요, 그런 장면 보고 있는데 옆에 현실 철민이가 누워 있고 그러거든요.

철민 기억나는 대사 있어?

환 (목소리를 깔고) 은성아, 나랑 사귀자.

모두 으악. 으으!

KIM CHUL MIN

김철민

MAIN VOCAL, GUITAR, KEYBOARD

04

<한입만> OST로 삽입된 '1도 기억이 안 나'를 듣다보면 연애를 시작하기 전의 설렘이 느껴지는데요. 좋아하는 상대에게 어떻게 다가가는 편인지 궁금해요.

승식 저는 좀 적극적으로 표현하는 편이에요. 그 사람이 제 마음을 몰라줄 바에는 어떤 쪽이든지 대답을 듣는 게 편해요.

철민 오, 멋있는데? 그럼 만일 용기 있게 말했는데 "미안, 난 친구로 생각하는데" 하면?

승식 (냉큼) 역시 나도 그렇게 지낼라 해쓰! 장난 좀 쳐봐쓰! (모두 웃음)

철민 뭐 우정을 확인하는 고백이야? ㅋㅋㅋ

동성 저는 은근히 챙겨줄 것 같아요. 형이랑 다르게 상대가 부담스러워할까봐….

승식 내가 부담스러운 남자다? (모두 웃음)

환 저는 좀 고민을 많이 하는 스타일이긴 한데, 고민을 하다가 결국엔 적극적으로 부딪쳐요.

철민 저는 진짜 좋아하는 사람이 있으면, 오히려 좀 멀리하려고 해요. (모두: 그게 뭐야?) 감정이 왔다 갔다 하잖아요. 제가 정말 좋아한다고 생각하면 시간이 지난 뒤에도 그 마음이 변치 않아야 맞는 거니까, 제 마음이 진지한가 아닌가 스스로 좀 시험해보는 것 같아요. 아, 이 사람이다 싶을 때까지 좀 오래 보고 천천히 다가가는 편이에요.

05

빠른 시일 내에 허니스트를 만나볼 수 있는 곳이 있다면 어디일까요? 앞으로 어떤 밴드로 활동하고 싶은지도 궁금해요.

동성 가장 빠른 건 홍대 클럽 공연요! 클럽 공연은 앞으로도 자주 할 예정이고요, 야외에서도 다양한 공연으로 여러분을 만나뵐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승석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홍대 클럽 공연 스케줄 확인하시고, 저희와 빠른 시일 내에 만나요! >_<

철민 허니스트의 음악처럼 천천히 자연스럽게 다가가고 싶어요. 많은 사람이 공감하고 모두가 흥얼거릴 수 있는 노래를 들려드리는 밴드로 성장하는 허니스트, 기대해주세요!

환 그냥 보고만 있어도 기분이 좋아지는 음악과 공연을 하고 싶어요. 얼마 전에 소란 선배님과 볼빨간사춘기 선배님 공연을 봤는데 정말 바라만 봐도 행복해지는 기분이 들었거든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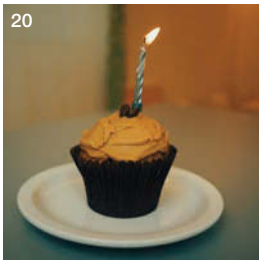
OH SEUNG SEOK

오승석

DRUM

16
READER'S LETTER

18
주간쥽쥽
에디터의 취향으로 이주에 주운 것들



20
20'S VOICE
완벽한 비극에 대하여

CONTENTS

No.843 2018.3.19~2018.3.25

SPECIAL

22
SMALL MIND
부러움과 자기 비하의 상관관계

24
10만원이 생긴다면
자취생의 꿈 실현, 사치스러운 홈 파티

26
CULTURE GUIDE
VLOG 김갈릭

36
CAMPUS TMI
홍익대 편

38
캠퍼스 예의범절
선배와 밥약 할 때 지켜야 할 매너

40
BAMBOO FOREST
#댕냄대숲 #고정관념 #남자라서_여자라서

42
을의 하루
방송작가 편

44
THINK
마음만으로는 되지
않습니다

46
PUZZLE
기명균의 낱말퍼즐

29

나랏돈 사용법

01. 모임비로 100만원을 지원받았어요
02. 장소를 지원받았어요
03. 콘텐츠 제작비를 지원받았어요
04. 경험자의 나랏돈 알차게 사용하는 TIP
05. 알아두면 좋을 청년 지원 사이트

48
WHAT'S NEW
이주의 주목할 만한 소식들

49
OUTCAMPUS
기온이 영상이라 추천하는
영상 공모전 BEST 4

선배CEO와 창업전문가가 함께하는
여성벤처CEO 양성 프로젝트

여성벤처창업 케어 프로그램 참가자 모집

모집규모 **유망 벤처창업 아이디어를 보유한 여성 예비창업자 60명(팀)**
※ 세부 자격요건은 모집공고문 참고

지원내용

비즈플랜 캠프	4월 말	**아이디어 카운슬링캠프(2박3일)** | 여성벤처창업 케어 프로그램 OT 및 네트워킹 선배CEO, 창업전문가와 함께 창업아이디어 검증 및 구체화
	5월	**비즈플랜 전문교육·코칭(30시간내외)** | 사업계획 고도화 및 사업화 세부실행전략 확보
	5월 말	**1차 비즈플랜 경진대회** | 후속단계 대상자 30팀 선발
선배CEO 밀착코칭	6월 ~ 8월	**선배CEO 1:1 밀착코칭(3개월)** | 선배CEO와 함께 실전 창업역량 강화 및 시장 맞춤형 비즈플랜 구축
		멘토-멘티 네트워킹데이 | 멘토/ 멘티간 정보 교류를 통한 동반 성장 기회 제공
사업화 과제해결	6월 ~ 10월	**사업화 과제 해결 자금지원(최대 5백만원)** | 샘플제작, 지재권출원·등록, 마케팅 등 사업화 과제 해결 지원
		2차 비즈플랜 경진대회 | 여성벤처창업 케어 프로그램 수료생 선발 / 우수 수료생 대상 투자유치 IR 지원

신청기간 2018. 4. 5(목) 18:00까지
신청방법 한국여성벤처협회 홈페이지(www.kovwa.or.kr) 공지사항 참고
참가문의 한국여성벤처협회 정책사업팀
Tel. 02-3440-7469 / E-mail. skdyd2686@kovwa.or.kr

QR코드를 스캔하시면 **한국여성벤처협회** 홈페이지를 보실 수 있습니다

중소벤처기업부 한국여성벤처협회

CONTENTS TEAM

팀장 홍승우 부팀장 정문정

MAGAZINE

파트장 김신지 summer@univ.me
에디터 김혜원 hyewon@univ.me
권혜은 hyen@univ.me
서재경 suhjk@univ.me
학생 에디터 김은지 김혜원 문소정 정다빈
교정교열 차은선
디자인 팀장 김해정 kiko@univ.me
디자인 남미가 miga@univ.me

DIGITAL MEDIA

파트장 정문정 moon@univ.me
에디터 김슬 dew@univ.me
김준용 dragon@univ.me
박현지 lararuler@univ.me
배다솜 sombang@univ.me
학생 에디터 권용범 구하민 박소영 이진영
정다운 허정민
디자인 디렉터 윤희선 yoon@univ.me
디자인 김지현 uujuinn@univ.me
이승은 lidy@univ.me
김은미 mongmiggu@univ.me
조범식 booomsik@univ.me

MEDIA COMMUNICATION

파트장 홍승우 sseung@univ.me
책임에디터 김효은 hihyo@univ.me
조웅재 woongja1@univ.me
에디터 백수빈 bin@univ.me
강민상 ninsan@univ.me
김상구 nine@univ.me

BRAND JOURNALISM

파트장 김초롱 rong@univ.me
책임에디터 주태환 joo@univ.me
박정욱 wook@univ.me
에디터 조아라 ahrajo@univ.me
기명균 kikiki@univ.me
김수현 soo@univ.me
유희수 hsyu@univ.me
노치원 kingofamonkey@univ.me

STAFF

발행·편집 김영훈 batcong@univ.me 공동 대표 유영기 김영훈 부대표 이태영 이사 김창배 고문 박재항

마케팅커뮤니케이션 1본부

본부장 김부진

마케팅커뮤니케이션 1팀

팀장 조인천 책임매니저 신예지 이혜민
매니저 손유리 조하니 김지영 사원 권소영 안예지 조지은

마케팅커뮤니케이션 2팀

팀장 김우준 파트장 김영현 이재우
책임매니저 이지연 유호정 홍보미 육혜진 권오태 책임에디터 김민정
매니저 백소연 한은지 이인재 사원 김준호

마케팅커뮤니케이션 3팀

팀장 안길상 파트장 조소라
책임매니저 김동하 양현정 홍보람 매니저 한희진 이혜인 신호영

마케팅커뮤니케이션 4팀

팀장 김지혜 파트장 김영수 문왕기
책임매니저 신현정 허이슬 김예림 박미소 정영수
매니저 송태광 에디터 정혁준

마케팅커뮤니케이션 2본부

본부장 박배길 수석 황정은

마케팅커뮤니케이션 5팀

수석 김효선 임영화 책임매니저 박종남 이은지
매니저 김규태 김다은 이상복 김유진 탕예 정유진 한문규 황주랑
사원 장지

마케팅커뮤니케이션 6팀

팀장 이수이 매니저 배용근 강지인 황주랑 사원 정규홍

마케팅커뮤니케이션 7팀

팀장 탁귀영 수석 박지호
매니저 봉장종 강혜빈 임은비 최진성 박상덕
사원 양제희 최정인

채용마케팅본부

본부장 김종원 수석에디터 이정섭 책임매니저 최규성

채용마케팅1팀

팀장 유제문 수석 홍성우
매니저 김형민 서창호 정희성 이성훈 박연우
사원 이종혁 이윤성 이정영

채용마케팅2팀

팀장 유진혁 수석 박준하 매니저 이준호 정기현 안창민 허정남
사원 가민희 윤길주 김용빈 김도희

채용마케팅3팀

파트장 신재영 매니저 이지현 최승현 사원 조은솔

디지털커뮤니케이션 본부

디지털커뮤니케이션 1팀

팀장 김범준 책임매니저 남승혁 김현주
매니저 김찬우 김동규 고민지 이아름 사원 송재은

디지털커뮤니케이션 2팀

팀장 차정기 책임매니저 강희은 권예빈 매니저 김민주 서해지

디지털커뮤니케이션 3팀

팀장 방수진 수석 이진희 책임매니저 이교영 홍새봄
매니저 김애리 박소영 신예지 이나윤

디지털콘텐츠팀

팀장 김현승 책임매니저 양준호 이연제
매니저 정진복 서준원 이경민 최현정 한동주
사원 김소영 설다운 박지원

디지털디자인팀

팀장 이혜정 책임매니저 박지성
매니저 조현상 임다정 오은정 전계은 김희재

유스마케팅팀

팀장 이성진 책임매니저 양상범 박정은 명범준
매니저 박상헌 최은원 권민희 정세미
사원 최창희 김나래 김나영 신은지

공공커뮤니케이션팀

팀장 박강두 수석 진우경 강국현 책임매니저 이재혁
매니저 송정훈 정혜인 이재은 사원 김지수 김하영 윤철한

20대연구소

소장 김영기 수석연구원 문송이 박진수 호영성
책임연구원 송혜윤 김금희 연구원 이재흔 정은미 지승현 장지성
에디터 남민희 사원 김다희

크리에이티브센터

센터장 조민형 파트장 정은우 전단비 수석 이윤경
매니저 김소연 신재인 사원 최웅진 홍서연

이비즈(E-BIZ)팀

팀장 권판진 수석 임남훈 김부록 하윤희 심재운 김진의
책임매니저 고은영 강주빈 김상호 이은주 매니저 김가언 박혜진 조이슬

경영지원본부

본부장 김운선 매니저 이승훈

경영지원팀

수석 김소연 윤수정 책임매니저 김주은

인재경영팀

팀장 민정규 책임매니저 김예지 김이슬 매니저 이상엽

인턴

권아름 권은빈 김나린 김민경 김민기 김소희 박민지 손경민
신하영 유송빈 윤어진 이다빈 이성호 이지선 정수지 정장희
최은유 최현정 홍선아 황기연 황현아 황현정

인쇄 프린피아 대표번호 02-735-3800 팩스 02-735-0005 배포문의 02-6925-0704
등록번호 서울다 05909 등록일 1999년 7월 9일 주소 서울시 종로구 창경궁로 143. 인성빌딩
(주)대학내일 홈페이지 http://univ20.com 20대 연구소 홈페이지 www.20slab.org

“나는 학교에서 처음 해본 것이 너무 많다.”

나는 학교에서 처음, 엄마에게 편지를 썼다.

나는 학교에서 처음, 자전거를 배웠다.

나는 학교에서 처음, 연극을 해보았다.

나는 학교에서 처음, 좋아하는 애에게 고백했다.

나는 학교에서 처음, 친구에게 사과할 용기가 생겼다.

나는 학교에서 처음, 세상에 대한 질문이 생겼다.

나는 학교에서 처음, 내가 꼭 하고 싶은 꿈이 생겼다.

서울시교육청이

여러분의 꿈을 응원합니다.

서울특별시교육청

나의 디즈니랜드

양윤지

기사를 읽고 나의 디즈니랜드는 어디였을지 생각해봤습니다. 유치원 시절을 보냈던 빌라 옆 골목은 소꿉놀이할 땐 예쁜 집이었고, 탐험놀이를 할 땐 든든한 베이스캠프가 돼주었죠. 친구들과 자전거나 인라인 스케이트를 타며 스릴 넘치는 경주를 벌이기도 했어요. '유년기를 떠올려보면 마법의 성을 건설하는 일은 그리 어렵지 않다'는 에디터님의 말씀처럼, 작은 빌라 단지는 무엇이 됐던 간에 저만의 마법의 성, 디즈니랜드였습니다. 그곳에서 함께 어울렸던 친구들의 근황이 문득 궁금해지네요. 서로의 이름과 나이도 모른 채 어찌나 재미있게 놀았던지. 당장 SNS에 들어가 기억이 나는 몇몇 친구들을 찾아봐야겠어요! 영화도 꼭 찾아볼게요!

스스로에 대한 집착을 버리니 홀가분해졌어요

양한나

누군가 날 싫어하게 되는 것을 우연으로 받아들이기까지 참 많은 시간이 걸리는 것은 저뿐만이 아닌가봐요. 미묘한 감정을 다루고 있는 기사임에도 일상에서 자주 신경을 쓰는 부분이었기 때문에 큰 공감이 되었습니다. 본인이 아닌 남이기 때문에 언제 어떤 방식으로 나를 미워하게 되어도 전혀 이상할 게 없다는 내용이 이상하게 큰 위안이 되었어요. 내가 도저히 손쓸 수 없는 방법으로 누군가 나를 미워한다면, 백날 머리를 쥐어짜봐도 답은 나오지 않으니까요. 특히 "김연아에게도, 아기 시바에게도 악플은 달린다"는 말은 너무 맞는 말이어서 헛웃음도 나왔어요 하하. 다들 본인의 소심함에 더 소심해지지 마시고, 나는 좀 더 섬세한 감각을 가졌다고 생각하면 좋을 것 같아요! 대범해지길 바라는 사회에서 저 같은 소심이들을 위한 섬세한 기사, 정말 감사합니다!

우리는 모두 '성장캐' 입니다

김대유

어렸을 때부터 게임을 즐겨 하던 제가 벌써 28살이 되었네요. 혹시 어릴 때 게임을 하지 않고 공부를 했더라면 '지금 어떻게 살고 있을까?', 또는 삶이 게임이라면 '다시 초기화하고 싶다!'라는 생각을 종종 했었어요. 하지만 언젠가부터 이 글처럼 인생은 '실전'이라는 것을 깨닫고, 지금은 후회하지 않도록 전진하고 있는데요. 글을 읽으며 이 세상 어딘가에 나와 같은 생각을 하는 동료가 있다는 걸 알고 동질감을 느꼈습니다. 2018년을 살아가는 청년들이여~ 인생은 게임처럼 초기화할 수 없지만, 게임처럼 즐기면서 조금씩 성장하는 맛으로 살아갑시다!

대학내일에서 독자 의견을 기다립니다.

이번 호를 읽고 좋았던 점과 인상 깊었던 기사,
앞으로 만나고 싶은 기사에 대한 의견을 보내주세요.
독자 의견으로 채택되어 잡지에 실린 세 분께
원영 글로벌 디즈니 캐릭터 키링 USB 케이블을 드립니다.

메일 readers@univ.me * 본문에 이름/주소/연락처 기재 필수
instagram #대학내일로 참여

2018 KOREA'S Most Admired Companies
한국에서 가장 존경받는 기업

한국에서 가장 존경받는 기업이란?

한국에서 가장 존경받는 기업은 끊임없는 혁신활동을 통해 지속적으로 경쟁력을 강화하여 탁월한 경영성과 창출과 시민사회의 일원으로서 사회적 책임을 성실히 수행하는 기업들을 조사하여 모든 이해관계자들에게 좋은 평가를 받는 기업을 의미합니다.
한국에서 가장 존경받는 기업은 KMAC에서 지속적인 혁신능력과 주주가치, 직원가치, 고객가치, 사회가치, 이미지가치를 총체적으로 일반소비자 뿐만 아니라 산업계 기관지, 증권사 애널리스트까지 확대하여 통합적으로 조사, 선정하여 전체 산업을 망라한 가장 존경받는 기업 All Star와 각 산업별로 존경받는 기업을 발표합니다.

15th 2018 KOREA'S Most Admired Companies 한국에서 가장 존경받는 기업

대한민국 경제와 함께한 15년
시간이 흐를수록 존경이 깊어집니다

시간의 흐름 속에서도 혁신과 도전이란 변함없는 가치로 대한민국 경제를 이끌어온 당신의 15년
최고의 자리에서도 변함없이 다시 일어날 대한민국을 위해 멈춤 없는 당신의 노력과 열정들이
대한민국의 가치를 높이고 더 큰 미래성장의 원동력이 되었습니다.

지속가능한 경영철학으로 사회적 가치를 실현하며 모두가 함께 성장하는 대한민국을 위해 힘써온 당신
지금까지 그래왔듯, 앞으로도 최고의 가치로 대한민국의 더 큰 미래를 경영할 그들에게
시간이 흘러도 변치 않는 존경을 전합니다.

더 큰 대한민국을 위한
2018 한국에서 가장 존경받는 기업

끊임없는 혁신으로 탁월한 경영성과 창출뿐만 아니라, 모두 함께 성장하며
한국 경제의 든든한 버팀목이 되어주신 한국에서 가장 존경받는 기업에게만 드리는 한국 경제의 가장 큰 명예입니다

kt
보령메디앙스
DAEKYO 대교
S-OIL
Dongwon 동원산업
DAEMYUNG RESORT
K쇼핑
신한은행
유한킴벌리
유한양행
한일시멘트
emart
Rinnai 콘덴싱도 역시 린나이
영진전문대학 YEUNGJIN COLLEGE
SAMSUNG 삼성전자서비스
서울아산병원
신한카드
청호나이스 청호 ULPA'뽀뽀'공기청정기 휘바람-숨소리

본 광고는 '2018 한국에서 가장 존경받는 기업'으로 선정된 기업들이 끊임없는 혁신과 탁월한 경영성과 창출을 통해 선도기업으로서 역할을 다하려는 의지를 표현하고자 공동으로 마련한 광고입니다.

잠재적 낙천주의자

금요일 밤 호기롭게 극장을 나서던 길, 주말이 코앞이라는 희망보다 곧 월요일이 돌아온다는 사실에 절망을 먼저 느끼고는 '그럼 그렇지' 하며 터덜터덜 집으로 향했다. 주말의 끝에는 지질한 얼굴들 셋이 모여 삶의 만족도와 행복감에 대해 논했다. 만족하지만 행복하지는 않은 J, 행복한데 만족은 못 하는 M, 만족도 못 하고 행복하지도 않아서 그냥 들고 있는 잔에 맥주가 반'밖에' 안 남았다고 생각하는 E가 있었다. 그래도 장밋빛 소년에게 "이봐, 우리 모두 너 같을 수는 없어"라고 말하는 보컬 헤일리의 목소리를 위로 삼아 밤길을 연신 걸었더니 간만에 기분 좋은 꿈을 꾸었더랬다. (*rose-colored : 밝은, 낙관적인) **최은유**

MUSIC Paramore <Rose-Colored Boy>

BOOK 권대웅 『나는 누가 살다 간 여름일까』

저녁 여섯시에 서 일곱시로 가는 길에 서 있는 우두커니라 물끄러미
그 시간이 되면 나타났다가 사라지는 것들이 있다
- 권대웅, 『나는 누가 살다 간 여름일까』 수록작 '시간의 갈피' 中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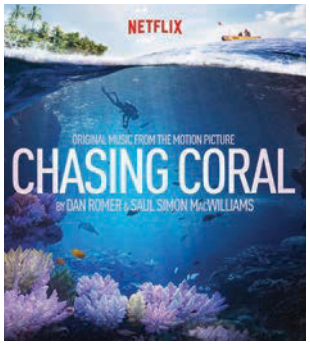
모든 일은 딱 한 번씩만 일어난다

언제부터 지는 해를 보면 하루가 시작되는 기분이 들었지? 창문 밖이 오렌지빛으로 물들 참이면 뛰쳐나가 놀고 싶어 엉덩이가 들썩거린다. 해야 할 일을 끝내지 못해 울상을 짓다가, 문득 주변을 둘러봤더니 피식 웃음이 나왔다. 모두 나와 같은 표정이다. 여러분 어서 나가자구요. 오늘 같은 봄밤은 오늘뿐이니까. **김혜원**

Weekly Pick Up

너무 빨리 따듯해지진 말아줘

얼마 전 친구로부터 올겨울 뉴욕 날씨가 반팔을 입을 만큼 더웠고, 북극 기온은 영상 2도를 찍었다는 얘길 들었다. 이상 기온 소식이 들릴 때마다 나는 '산호'가 떠오른다. 스킨스쿠버를 배운 뒤, 여름에 한 번씩 산호를 보러 바다를 찾는다. 좋아하는 산호가 점점 사라지고 있다는 걸 알게 된 건 <산호초를 따라서>를 보고 난 후였다. 이 다큐멘터리에 따르면, 지구 온난화 탓에 30년 후면 더 이상 산호를 보지 못할 수도 있다고. 내가 좋아하는 것들이 사라진다니 이제야 1도 관심 없던 문제들이 걱정되기 시작했다. 갑작스레 10도 이상 높아져 봄이 돼버린 지난주 출근길 날씨가 마냥 반갑지만은 않던 이유다. 날씨야, 너무 빨리 따듯해지진 말아줘. **서재경**



DOCUMENTARY <산호초를 따라서>

BOOK 이문열 『아우와의 만남』

지금까지 알려진 바로 그가 자신의 성적인 행실
때문에 공식적으로 기소된 일은 한 번도 없다. 그러나
그게 그의 무죄함을 증명하지는 않는다.
- 이문열, 『아우와의 만남』 수록 단편 「사로잡힌 악령」 中

악은 어떻게 만들어지는가

악은 태어날까, 만들어질까. 윤리 시간, 성선설과 성악설로 토론 배틀을 벌이던 때부터 풀리지 않는 의문이다. 이문열의 소설집 『아우와의 만남』에 수록된 단편 「사로잡힌 악령」을 보면 답을 알 듯도 싶다. 주인공은 법조인으로 대학 시절부터 보아온 '땡중'이 어떻게 명사·거장·민주 투사의 탈을 썼는지를 증언한다. 그에 따르면, 악은 태어나며 또한 사회의 방조로 만들어진다. 악은 서슴없이 대의를 이용하여 몸집을 불리고, 정의로운 사람들을 방패로 사용하기 때문이다. 우리가 할 수 있는 일? 불길한 악이 사회에 해를 끼치지 않도록 눈을 떼지 않는 것뿐이겠지. 이 단편은 출간 직후 '항의'를 받아 삭제되어 더 이상 지면으로는 볼 수 없다. 문단 내 #MeToo가해자로 지목된 En 선생이 '악령'의 모티프라는 설이 있지만, 언제나 진실은 멀리에. **권혜은**

PLACE '니엔테'

나는 나를 데리고 잘 살아야지

만원 버스를 타고 꾸벅꾸벅 졸고, 바쁘다고 편의점 도시락이나 2천원짜리 김밥으로 끼니를 때우다 보면 사는 게 뭘까 싶어진다. 사는 것처럼 살고 싶다고 생각하기도 한다. 다른 삶. 그런 삶은 여기가 아닌 다른 어딘가에 있을 것만 같은, 그런 때가 바로 기분 전환을 하러 나설 때다. 늦잠 자고 일어난 주말 오후, 석촌호수 근처 '니엔테'에 가서 점심을 먹었다. 테이블 네 개가 놓인 아담한 가게지만, 동네 맛집이라 부르기엔 너무 맛있다…. 보는 것만큼 맛도 만족스러운 식사를 하고 있자니 내가 나를 대접하는 기분이 들었다. 새삼 올봄의 다짐을 한다. 나를 잘 재우고, 제철 재료들로 잘 먹이고 또 잘 입혀서 내 마음이 편안해지는 장소에 데려가고 싶다고. 그러니까 나를 데리고서 더 잘 사는 일에 대해 생각했다. 그런 기분이 든다면 잘 쉰 셈이다. **김신지**

GS25

Cafe 25

대학 대항전

Cafe 25 를 마시면 멜로망스 헤이즈가 우리 학교에?

행사기간

3.12 - 4.30

참여방법

나만의 냉장고 앱 이벤트

1 카페25 구매 시 스탬프 1개 지급 > 2 스탬프 1개당 1회 응모 가능 > 3 응모 시 대학교명 입력

* 자세한 사항은 나만의 냉장고 앱을 참고해주세요

유의사항

- 학교명은 본인 소속 학교가 아니어도 응원하는 전국 대학교 입력이 가능합니다
- 스탬프 생성 후, 응모/학교명을 입력하지 않으시면 응모가 완료되지 않습니다

* 자세한 사항은 나만의 냉장고 앱을 참고해주세요

경품 안내_ 학교

1등
멜로망스 & 헤이즈 공연
+ Cafe25 1,000잔 시음회

2등
Cafe25 1,000잔 시음회
+ 샌드위치 600개

3등
Cafe25 1,000잔 시음회

경품 안내_ 개인

1등
맥북 에어 13인치
3명

2등
아이패드 프로
10명

3등
GS25 상품권 5만원권
100명

완벽한 비극에 대하여

나보다 덜 임팩트 있는 가난들에 대해 생각했다.

WRITER 양다솔 moojusim@gmail.com
온수동에 살지만 그렇다고 우리 집에 온수가 나오진 않아

어느 날 아빠가 떠났다. 내가 대학교 1학년 때였다. 그는 엄마와 나를 버리고 스님이 되겠다고 했다. 지난 오십 년은 당신 뜻대로 되지 않았으나 앞으로의 오십 년은 그러지 않을 거라는 비장한 말을 남기고 갔다. 엄마는 아파서 일을 그만뒀다. 병원에선 입원은 몇 주면 되지만 한동안은 회복에만 전념해야 된댔다. 일련의 사건들이 가져다준 변화는 간단하고 명확해 보였다. 나는 알바를 하나 더 시작했고, 아빠의 차를 헐값에 팔아 등록금을 냈고, 엄마는 화를 더 자주 냈다. 그러다 어느 날 내가 쌓인 피로로 인해 수업 시간에 조는 일이 잦아지고, 결석까지 하는 상황에 이르자 깨달았다. 나는 공부도 일도 제대로 할 수 없었다. 그 순간 나는 학업을 멈추고 일을 하기 시작했다. 그러나 아무리 일을 해도 달라지는 것은 별로 없었다. 자취방 월세와 공과금, 식비, 두 마리 고양이의 사료 값, 핸드폰 요금을 내고 나면 모을 돈이 없었다. 일을 마치고 헐레벌떡 막차를 잡아타고 집으로 돌아가는 길엔 어딘가 잘못된 듯 한 느낌을 지울 수 없었다. 그러던 어느 날 친구로부터 연락이 왔다. 친구는 똑똑한데 가난한 학생들을 위한 장학금이 있다고 소개해주었다. 처음엔 지원을 망설였다. 그것은 천재적인 두뇌로 금방이라도 하늘로 비상할 학생이 찢어지게 가난하고 불우한 가정환경에 날개를 묶였을 때를 위한 것이 아닌가 생각했다. 내 옷에는 눈에 띄는 구멍도 없고, 성적표에는 필요 이상으로 다양한 알파벳들이 있었기 때문이다.

혹시나 해서 찾아본 장학금 신청서의 질문들은 대강 두 가지의 내용을 요구하고 있었다. 너는 얼마나 열심이며, 얼마나 비참한가에 대한 것이었다. 나는 한 가지씩 적어나가기 시작했다. 평생 동안 일을 쉬어본 적 없는 엄마는 자신의 이름으로 된 집 하나 장만하지 못했고, 지금은 병이 들어 실직 상태이다. 아빠는 가정을 버리고 떠났다. 가족 중 누구도 소득원이 없어 당장 내야 할 등록금을 위해 유일한 재산인 차를 헐값에 팔았다. 나는 항상 생활비를 벌어가며 학업을 병행하다가 어느 순간 한계에 다다랐다는 판단으로 휴학계를 내고 매일 일하고 있다. 여기까지 써 나가다 나는 나의 가난이 임팩트가 부족하다고 느껴 엄마와 함께 살고 있는 이모의 이야기도 쓰기로 했다. 이모는 세 번의 이혼 후 정신이상자로 진단을 받고, 생활보호대상자로 지정되어 제대로 된 경제활동을 하지 못하는 개체로서 나와 엄마의 손에 떠맡겨졌다.

좀 더 적을 만한 것이 없나 생각하며 한 줄 한 줄 더하고 있는데 어느새 나의 볼에 눈물이 흘러내리고 있었다. 내 앞에 명확히 실존하는 묵직한 가난은 그 글에서 너무도 지루하고 뻔한 어조로 비참하게 서술되고 있었다. 그곳에는 예쁜 원피스 한 벌을 사기 위해 산책 삼아 버스비를 아끼고, 때로는 비싸고 맛있는 밥을 먹는 사치를 부리고, 친구들과 적은 돈으로 여행을 가기 위해 갖가지 방법들을 연구하고, 빛 좋은 날에는 잠시 수업을 빠져나와 산책을 하는 내 모습이 없었다. 그것은 어릴 적부터 TV에서 흔히 보았던 불행한 사람들의 이야기, 어른들의 말을 듣지 않은 아이들이 벌로써 받는 운명과 같은 이야기였다. 사실 나의 이모는 굉장히 활발한 사람이다. 그녀는 부지런하고 손이 야무져서 김치를 맛있게 담갔고, 집 안을 예쁘게 가꾸었으며 주변 사람들을 챙겼다. 나의 어머니는 어린 나이부터 노동 전선에 뛰어들어 가정을 책임져야 했음에도 세상에 대한 배움을 게을리하지 않았다. 또한 인생의 가장 어려운 문제들에 명확한 해답을 내놓을 줄 아는 지혜를 가졌으며, 내가 가장 닮고 싶은 사람이었다. 무엇보다 나의 심신을 건강하게 길러준 훌륭한 어머니였고, 당신은 받아보지도 못한 대학 교육까지 받도록 해주었다. 아버지는 일면 무책임하게 우리를 떠났지만, 성실하고 훌륭한 아버지였으며, 나는 같은 인간으로서 그를 응원할 수 있었다. 비극은 쉬웠다. 비극은 이야기 자체가 아닌 앵글에 있었다. 장학생으로 선정되었다는 연락을 받은 날 나는 뛸 듯이 기뻤다. 그리고 경쟁에서 젖혀진 나보다 덜 임팩트 있는 가난들에 대해 생각했다. 신청서 위에서 죽어버렸을 수많은 희망의 순간들에 대해서 생각했다. 가난하기 이전에 한 명의 학생으로서 캠퍼스를 누비고 있을 나의 친구들을 생각했다.

10만원이 생긴다면?

대학내일에서 야심차게 준비한 코너! 여러분에게 어느 날 갑자기 10만원이 생긴다면 어디에 쓰고 싶으신가요? 어떤 이유로 어디에 쓰고 싶은지 '10만원 사용계획서'를 보내주세요. 계획이 신박할수록, 이유가 설득력 있을수록 당첨 확률이 높아집니다. 당첨된 분께는 10만원을 드리고, 그 생생한 사용기를 지면에 싣습니다. 많은 참여 바랍니다!

메일 magazine@univ.me
※ 제목에 [10만원] 포함
Ex.[10만원] 사용계획서 보냅니다!
※ 본문에 이름/학교/연락처 기재 필수

20 대학내일

대학내일이 매주 10만원을 쏜다!

₩100,000원

글 솜씨 뽐내고 원고료 받기!
20's Voice

20대라면 누구나 대학내일에 글을 기고할 수 있습니다. 일상에서 겪고 느낀 솔직한 이야기를 A4 1장(원고지 10매 이내) 분량으로 보내주세요. 지면에 글이 실린 분들께 원고료 10만원을 보내드립니다.

메일 magazine@univ.me
※ 본문에 이름/연락처 기재 필수

소심이의 소심한 생활
재는 발표를 참 잘 하네.
부럽다.
점장님은
돌발상황에 어쩜 저렇게
대처를 잘 하실까.
완전 멋있고 부럽다.
후어어
세상엔
잘난 사람이
정말 많은 것
같아.
오늘도 의미 없는 생각으로 하루를 마무리했습니다.
나도 언젠가
다른 사람이
부러워할 만한
인간이 될 수
있을까?
또 시작이다.

부러움과 자기 비하의 **상관관계**

고양이로 태어났다면 어땠을까? 종종 들르던 카페 고양이 '하하'를 보며 떠올린 생각이다. 하하는 팔자 좋게 늘어져 있다가 손님이 오면 뚫어져라 쳐다보곤 했다. 흡사 관상을 보는 자세였다. 드나드는 사람이 없으면 다시 창가로 옮겨 가 지나가는 사람들을 하염없이 봤다. 그리하여 고양이만큼이나 할 일이 없던 휴학생은 쓸데없는 상상을 하게 된다. '내가 고양이로 태어났다면 뭔 생각을 하며 지냈을까.' 오래 고민할 것도 없었다. 나라면 창밖 사람들을 부러워하는 데 온 시간을 썼을 테다.

사실 인간일 때(?) 하는 생각도 별로 다르진 않다. 세상엔 잘난 사람이 너무 많다. 주변만 둘러봐도 부러워할 사람이 한 트럭이다. 우선 9년 지기 D의 친화력. 워낙 누구하고나 잘 지내서 주변 사람들이 "넌 김정은 위원장이랑도 친구 할 수 있을 것 같다"고 말할 정도다. 특유의 유쾌함으로 분위기도 잘 띄워서 다들 D를 편하게 여긴다. 요즘 자주 부러워하는 건 선배 S의 화술인데, 선배는 어떤 상황에서도 정색하는 법이 없다. 웃는 낯으로 그렇지만 단호하게 의견을 이야기한다. 나는 사람 좋은 척 끌려다니다 궁지에 몰리면 무는 쥐 타입 인간인지라, 선배를 볼 때마다 감탄스럽다. 생의 모든 일에 산뜻한 태도로 임하는 H(그의 자세는 절박하지 않아 우아하다), 쥐뿔 없어도 마음이 부자라 자유로운 J도 부럽다.

우물 밖으로 갓 나온 개구리 시절, 내게 '부러움'은 일종의 연료였다. 먹다 버린 과자 봉지처럼 의욕 없이 늘어져 있다가도, 누군가에게 부러움을 느끼면 벌떡 일어섰다. 덕분에 소소한 발전도 있었다. 비키니 입은 과 동기에 자극받아 다이어트를 시작하기도(망했지만), 인문학적 소양이 깊은 남자를 만나 철학책을 사기도 했다(안 읽었지만). 부러움의 감정을 나름 긍정적으로 활용한 셈이다. 그렇게 쭉 평화롭게 공존했다면 참 좋았을 텐데….

오래가지 못했다. 웹툰 <유미의 세포들>을 본 사람이라면 익숙할 풍경이 내 안에서 펼쳐졌기 때문이다. <유미의 세포들>은 주인공의 머릿속에 세포들이 사는 마을이 있다는 세계관 아래 진행된다. 식욕, 성욕, 소비욕 등 온갖 욕구들이 각각의 세포로 존재하는데, 특정 세포의 힘이 세지면 마을의 평화가 깨진다. 배가 고프면 식욕 세포인 출출이가 거대해져 주변을 쑥대밭으로 만드는 식이다. 그 상태의 출출이는 이성도 감성도 말릴 수 없다.

마음을 홀가분하게 만드는 주문

> "파슬리가 고기를 부러워하면 불행해집니다.

습관처럼 다른 사람을 부러워한 탓에 내 머릿속의 대장 세포는 부러움이 됐다. 갑자기 강력해진 녀석은 기다렸다는 듯 자신감과 자존감을 마을 밖으로 몰아냈다. 그러곤 시기, 질투, 열등감 같은 놈들을 데리고 왔다. 그들은 순식간에 마을을 점령했고, 누군가에 대한 칭찬은 곧장 나에 대한 비난으로 이어졌다. "쟨 저렇게 잘났는데, 넌 왜 그래? 넌 언제쯤 누가 부러워할 만한 사람이 될래?"

부러움은 꽤 오랫동안 마을을 지배했다. 조건 없이 나를 예뻐해주는 이도 만났고, 어깨를 으쓱할 만한 성과도 냈지만, 소용없었다. 요새 좀 잠잠한가 싶으면, 어느새 존재감을 과시하며 난동을 부린다. 그래선지 나의 오랜 친구들은 내가 누군가를 칭찬하면 혀부터 끌끌 찬다. 또 시작이다 싶어 속상한 마음일 테다.

얼마 전엔 앞서 이야기한 D가 술이 좀 돼서 전화를 했다. "어디서 봤는데… 파슬리 키우는 농부한테 파슬리 대부분이 장식으로 쓰이다가 버려지는데 어떻게 생각하냐고 물어봤대. 그랬더니 농부가 충격받은 얼굴로 '맛있게 키우려고 최선을 다했다'고 했대. 너희 어머니도 같은 심정 아닐까…. 사실 나도 좀 그래." 아, 파슬리…. 나는 언제쯤 파슬리임을 인정하고 고기 부러워하길 그만둘 수 있으려나. 아무래도 기약이 없어 못 들은 척 딴소리를 했다. "이제 겨울 다 갔나보다. 밤인데도 안 춥네."

WRITER 김혜원 hyewon@univ.me **ILLUSTRATOR** liz

자취생의 꿈 실현, 사치스러운 홈 파티

많다면 많지만 적다면 적은 10만원. 내 욕심을 채우기엔 턱없이 모자랄 것 같다. 대신 작은 사치를 해보기로 했다. 평소에 쉽게 사지 못했던 식재료들을 사고 망설였던 것들을 마음껏 하며 하루만 만수르인 척해보는 것이다. 대형 마트를 털어서 이름부터 어려운 찹 스테이크, 아보카도 브루스게타, 감바스 알 아히요에 도전! 취준으로 지쳐 있는 친구 A와, 같은 동네 주민이지만 멀리 이사를 가게 된 친구 B를 초대하여 사치스러운 홈 파티를 열어보기로 했다.

학생 에디터 김은지 **INTERN** 최은유 metaphor@univ.me

01

본격 식재료 사치 시작!

자취생이 카트를 끌고 장을 볼 일은 거의 없다. 1인분에 맞추다 보면 식재료가 많지도 않고, 돈이 없어 많이 살 수도 없기 때문. 오늘은 10만원이 있다! 게다가 여럿이서 먹을 재료가 필요하니 카트는 필수! 제일 먼저 보이는 야채 코너에서 깐 야채들이 있는 곳으로 향한다. 사치스럽게 까져 있는 마늘과 씻겨져 있는 야채들로 카트를 채우기 시작했다. 한 번도 산 적 없었던 루꼴라, 라임, 아보카도, 페퍼론치노를 카트에 담는다. 사실 어떻게 요리하는지, 어느 음식과 어울리는지도 모르지만 목표 요리의 레시피대로 구매해본다. 무엇보다 요리 똥손인 나를 위해 가장 필요한 것은 소스류! 스테이크 소스와 향을 내기 위한 로즈마리도 구매했다.

메인 재료 (소고기, 새우, 아보카도, 바게트 등) ₩30,320
야채 ₩18,620 **향신료 및 소스** ₩15,72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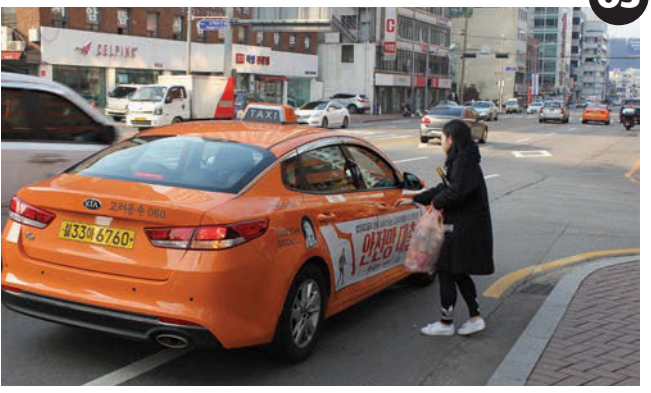
02

와인 코너, 미지의 세계로

24년 짧은 인생, 대형 마트에 약 479번 정도 들락날락했지만 단 한 번도 와인 코너에 발을 들여놓은 적은 없었다. 친구들과 놀러 갈 때는 주로 소주와 맥주를 샀고, 어쩌다 와인 먹을 일이 있다면 그것은 부모님의 초이스였다. 대형 마트의 와인 코너는 바닥도 나무이고 점원들도 옷을 갖춰 입고 있어서 왠지 발을 들이기 무서운 아우라를 풍기고 있다. 그 곳에 드디어 입성, 치즈와 와인을 구경하니 이 시대의 한량이 된 듯한 느낌이 든다. 정작 뭐가 뭔지는 1도 모르겠다. 디아블로, 까모, 까버네…. 그냥 병 디자인이 깔끔한 칠레산 와인 한 병을 들고 나온다. 치즈가 안주로 좋다고 하니 까망베르 치즈도 하나 구입한다.

와인 ₩9,800 **디저트** ₩11,280 **종량제 봉투** ₩490

03



손과 발을 위한 택시

서울은 대중교통이 많긴 하지만 결코 좁은 곳이 아니다. 왜 지하철역은 우리 집을 비껴가고 환승할 때 시간은 맞지 않고 버스 정류장에는 의자가 없을까. 장을 본 후 짐을 바리바리 들고 집까지 걸어 올라가다보면 택시의 유혹이 어느 때보다 강렬하다. 그 유혹을 뿌리치고 집에 도착했을 때 돈 낭비 안 했다며 뿌듯하면 참 좋겠다만, 고작 3천원 아끼려고 몸 고생을 한 처지가 비참할 뿐이다. 나의 손과 발을 구해줄 10만원! 하루 천하일지라도 장렬하게 쓰고 전사하리! 한 손엔 장바구니, 한 손엔 와인 병을 들고 당당히 나가 택시를 잡는다. 집까지 차를 타고 오니 이렇게 좋을 수가 없다. 택시 아저씨의 (스님이 고기를 먹고 싶을 땐 어떻게 하는지 따위의 시답잖은) 농담도 들을 만한 것 같다.

택시비 ₩3,700

04

고생 끝에 파티가 온다

야채 씻고 썰기만 30분. 브로콜리 머리들과의 사투 끝에 드디어 가스 불을 켤 수 있었다. 끓는 기름에 녹아가던 냉동 새우를 넣으니 물과 기름이 만나 뜻밖의 기름 파티를 벌였다. 야호! 새우의 물은 키친타월로 제거하라던 블로거의 말을 무시한 벌이지만, 그래도 나름 그럴싸한 요리가 완성되었다. 사치에 정점을 찍고자 식탁에 번잡스럽게 꽃도 두고 라벤더 향초를 켜고 있으니, 마치 드라마에서 보던 소소한 집들이인 척하는 호화스러운 파티를 드디어 나도 하는구나 싶다. 친구들의 조금은 우울한 취준 생활 이야기를 듣기도 하고, 이사를 가게 된 친구 때문에 마음이 싱숭생숭했지만 분위기는 즐거웠다. 맛있는 음식을 내 돈 안 쓰고 자유롭게 먹는다는 기쁨 때문일까. 디저트로 준비한 크림 브륄레와 친구가 사 들고 온 콜라에 라임을 둥둥 띄워서 먹는 호사를 누리며 파티를 끝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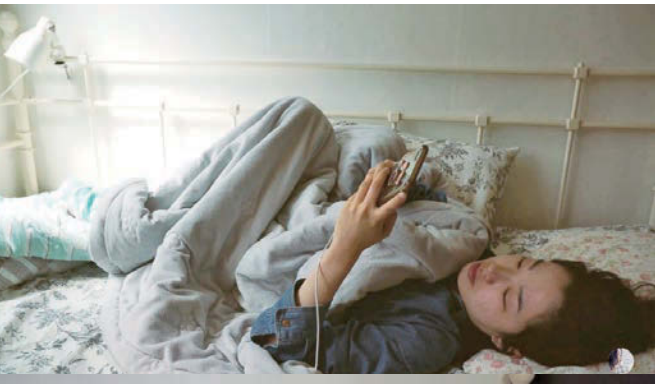
+ EPILOGU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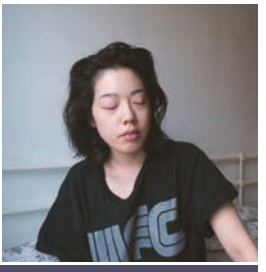
생각 없이 재료를 카트에 담으면서도 찔뱅이 DNA는 어디 가지 않았다. 나도 모르게 그램당 값을 확인하며 쇼핑을 했으니 말이다. 택시를 탈 때도 미터기에 시선을 고정하고는 기사님의 이야기를 듣고 있었다. 혹시 돌아가는 건 아닐까 생각하며. 오늘이 지나면 다시 김치볶음밥의 굴레로 들어가겠지만 나는 사실 소고기 스테이크보다 김치볶음밥을 좋아한다! 또 감바스 알 아히요보다는 간장달걀밥이 더 맛있는 것 같기도. - 프라이팬 네 개와 접시 약 10개를 씻으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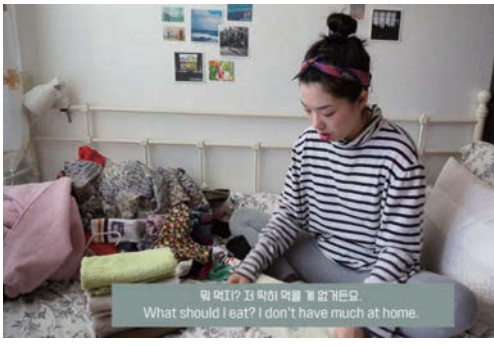
향초 ₩3,000 **꽃** ₩7,000

어느 날 갑자기 10만원이 생긴다면? ₩100,000

다음 주 주인공은 바로 당신! 여러분에게 어느 날 갑자기 10만원이 생긴다면 어떤 이유로, 어디에 쓰고 싶은지 magazine@univ.me 로 '10만원 사용 계획서'를 보내주세요. 계획이 신박할수록, 이유가 설득력 있을수록 당첨 확률이 높아집니다. 당첨된 분께는 10만원을 드리고, 그 생생한 사용기를 지면에 싣습니다. 많은 참여 바랍니다!







일상적인 일상이 주는 행복감에 대하여

VLOG

김갈릭

김갈릭 KimGarlic
구독자 65,887명

늦은 저녁, 침대에 드러누워 인스타그램을 켠다. 팍팍한 하루의 끝에 그곳에 들어가 보면, 친구들의 화려한 쇼가 펼쳐진다. 척 봐도 비싸 보이는 이름 모를 디저트 먹방부터 최소 배경이 에펠탑인 유럽 여행 인증 샷까지. 세상 행복해 보인다. 그들이 보여주는 모습은 완벽하다. 하지만 반짝이는 그 일상은 내가 피부로 느끼는 일상과는 어딘가 좀 다른 것 같다.

이를테면 피드에 새로 뜬 친구의 셀카 사진. 어느 때보다도 예쁜 얼굴로 환하게 웃고 있는 모습이지만 그 완벽한 사진을 보고 있노라면, 친구가 이 한 장을 건지기 위해 얼마나 많은 셀카를 찍었을지 생각해보게 된다. 눈 감고 찍고, 윙크하고 찍고, 손으로 꽃받침하고 찍고…. 그런 생각을 하게 되면 이 모든 게 퍽 우스워진다. 처음엔 서로의 사소한 일상을 공유하는 공간이었지만, SNS는 이제 알게 모르게 '꾸며진' 것들로 가득하다. 엄격한 자체 검열을 통해 '내 일상으로 보였으면 하는' 게시물들만 올리게 된 탓이다. 그런 것을 보여주는 것에도 보는 것에도 지친 나는 결국 폰에서 SNS를 지워버렸다.

그 뒤 내게는 잠들기 전의 휴식 시간을 채워줄 다른 무언가가 필요해졌다. 한동안 여기저기를 배회하다가 우연히 한 브이로그(Vlog)를 보게 되었다. 그런데 영상 속 이 여자, 어딘가 범상치 않다! 오후 몇 시나 되었을까, 빛이 드는 침대에 누워 있는 그녀는 부스스한 사

자 머리를 하고 있다. 눈도 뜨지 못한 채 겨우 침대에서 몸을 일으키더니, 눈을 끔뻑인다. 그리고 느릿하게 다시 이불 안으로 들어간다. 다시 자려나보다고 생각하는 찰나, 벌떡 일어나서는 게슴츠레한 눈으로 이렇게 말한다. "지금 일어났어요… 할 게 굉장히 많은데, 오늘." 특유의 나른한 목소리. 바로 유튜버 김갈릭이다.

갈릭 언니(내 맘대로)는 우리에게 자신의 일상을 그저 담담히 보여준다. 아주 편한 모습으로. 이것저것 쌓여 있는 싱크대, 구석에 처박혀 있는 아령 두 개…. 너무 편해서 거의 내 자신을 거울로 보고 있는 느낌이다. 잠옷 츄리닝에 헝클어진 머리, 화장기 없는 민낯까지.

> "별것 없는 일상을 특별하게 만드는 것이야말로 갈릭 언니의 매력이다. 자신의 방식대로 일상을 만끽하는 그녀를 보며 나는 알게 됐다. 아, 보잘것없다고 외면했던 내 일상도 사실 참 소중하고 예쁜 것이었구나.

퉁퉁 부은 얼굴로 잠도 덜 깬 채 앉아 있는 갈릭 언니에게 내 마음은 이미 잠금 해제 당한 지 오래. 느긋한 그녀의 일상을 지켜보다 보면, 어느새 함께 느긋해지는 나를 발견하게 된다. 하루 종일 조급했던 마음이 본래의 호흡을 되찾는다. 카메라 앞에서 너무도 편하게 자신을 있는 그대로 보여주니, 보는 이의 꽉 조여 있던 마음도 스르르 풀어질 수밖에.

여기에 눈 호강과 귀 호강은 덤이다. 먼저 눈 호강. 언니의 집 안에 드리우는 자연광은 어딘가 우리 집과는 다른 것 같다! 평범한 방이지만 은은한 빛이 비춰 들면, 작은 가구들이 제 몫의 아름다움을 뽐내며 마치 고가의 가구처럼 멋스럽게 보인다. 영상을 보다가 나는 언니네 서랍이 내 방 서랍이랑 굉장히 비슷하다는 걸 알게 됐다. 그제서야 다시 보게 된 서랍…. 아니, 우리 집 서랍이 이렇게 예뻤나? 갈릭 언니는 이처럼 내가 평소 흘려 넘겼던 것들의 '예쁨'을 찾아 눈에 떠 넣어준다.

다음으로 귀 호강. 좋은 노래라도 팡팡 틀어주냐고? 노래는 무슨, 배경 음악조차 거의 없다. 대신 집 안에 퍼지는 백색소음을 배경으로 그녀의 말 한마디 한마디에 집중하게 된다. 특유의 나른한 목소리에 취해 마음도 놓게 되고. 참 듣기 좋다. 이쯤 되면 살짝 혼동이 온다. 내가 보고 있는 게 브이로그인가, 웰 메이드 단편 영화인가.

이렇게 별것 없는 일상을 특별하게 만드는 것이야말로 갈릭 언니의 매력이다. 자신의 방식대로 일상을 만끽하는 그녀를 보며 나는 알게 됐다. 아, 보잘것없다고 외면했던 내 일상도 사실 참 소중하고 예쁜 것이었구나. 오늘은 혼자 도서관에서 책을 보다 문득 이런 생각을 했다. 종이 냄새가 참 좋다고. 책장 넘기는 소리가 듣기 좋다고. 조용한 이 순간이 참, 근사하다고. 오늘도 갈릭 언니는 특별한 일이라고는 일어나지 않는 영상을 통해 우리에게 말해준다. 당신의 하루가, 당신이 있는 그대로 존재하는 그 모든 순간이 사실은 아름다운 것이라고.

학생 에디터 김혜원 ganwlrog@naver.com

일상의 행복을 더 맛보고 싶다면 +

NETPLIX <길모어 걸스>

미드 하면 자극적이라는 공식이 먼저 생각난다. 그러나 이 미드는 다르다. 아주 소소하고 쾌활하다. 스타스 할로우라는 작은 마을을 배경으로 '길모어'라는 성을 가진 젊은 엄마와 딸의 일상을 다루고 있다. 딸 로리 길모어의 성장 이야기가 주가 된다. 그들이 투닥거리며 성장해가는 모습이 보는 이를 미소 짓게 한다.

MOVIE <패터슨>

미국 뉴저지에 사는 패터슨은 버스 운전사다. 일이 끝난 후 그는 지하실에서 시를 쓴다. 여자아이의 머릿결부터 별 볼 일 없는 성냥까지 주변의 무엇이든 시가 될 수 있다. 그의 일상은 우리의 그것과 비슷해서 지루해 보이기까지 하지만, 그는 담담히 자신의 일상에 집중하고 그것을 예술로 승화시킨다.

SONG '해피 론리 데이'

소규모 아카시아 밴드의 다섯 번째 정규 앨범에 실린 곡. 일상을 담은 가사와 잔잔한 멜로디, 속삭이는 듯 여린 목소리가 귀를 간질인다. 눈을 미처 다 뜨지 못한 아침에 들으면 부드럽게 귀에 감기는 노래다. 마지막엔 거리의 백색소음이 그대로 들려온다. 우리의 일상, 오늘 하루, 외롭지만 행복한 나의 해피 론리 데이.

인문360°

인문360° 홈페이지 리뉴얼 기념 이벤트

초간단 공모전

인문360° 홈페이지가 리뉴얼되었습니다.
새로운 코너 **'한줄인문'**에 참여하세요.
www.inmun360.culture.go.kr

"한줄인문에 글귀만 남기면 공모전 참여 끝."

1차 홈페이지 참여

공모기간
2018.03.19(월)~03.25(일)

공모주제
'변화'에서 시작된 생각
#탈출, #다짐, #둔해지다, #치열함 등 다양한 생각으로 뻗어나갈 수 있는 '변화'. 여러분의 '변화'를 적어주세요.

홈페이지 바로가기

2차 페이스북 참여

투표기간
2018.03.26(월)~04.01(일)

결과발표
2018.04.03(화)
*본 이벤트 참여작은 추후 인문360° 콘텐츠 및 광고 용도로 활용될 수 있습니다.

홈페이지가 이렇게 리뉴얼 됐어요

- ☑ 가독성 향상과 모바일 최적화
- ☑ 다양한 신규 메뉴 개설, 인문 큐레이션 서비스
- ☑ 지도·검색 서비스로 만나는 인문 자원

인문360°는, 인문정신문화와 관련한 다양한 콘텐츠를 누구나 쉽게 누릴 수 있도록
문화체육관광부와 한국문화예술위원회가 만든 온라인 서비스입니다.

▶1차경품 안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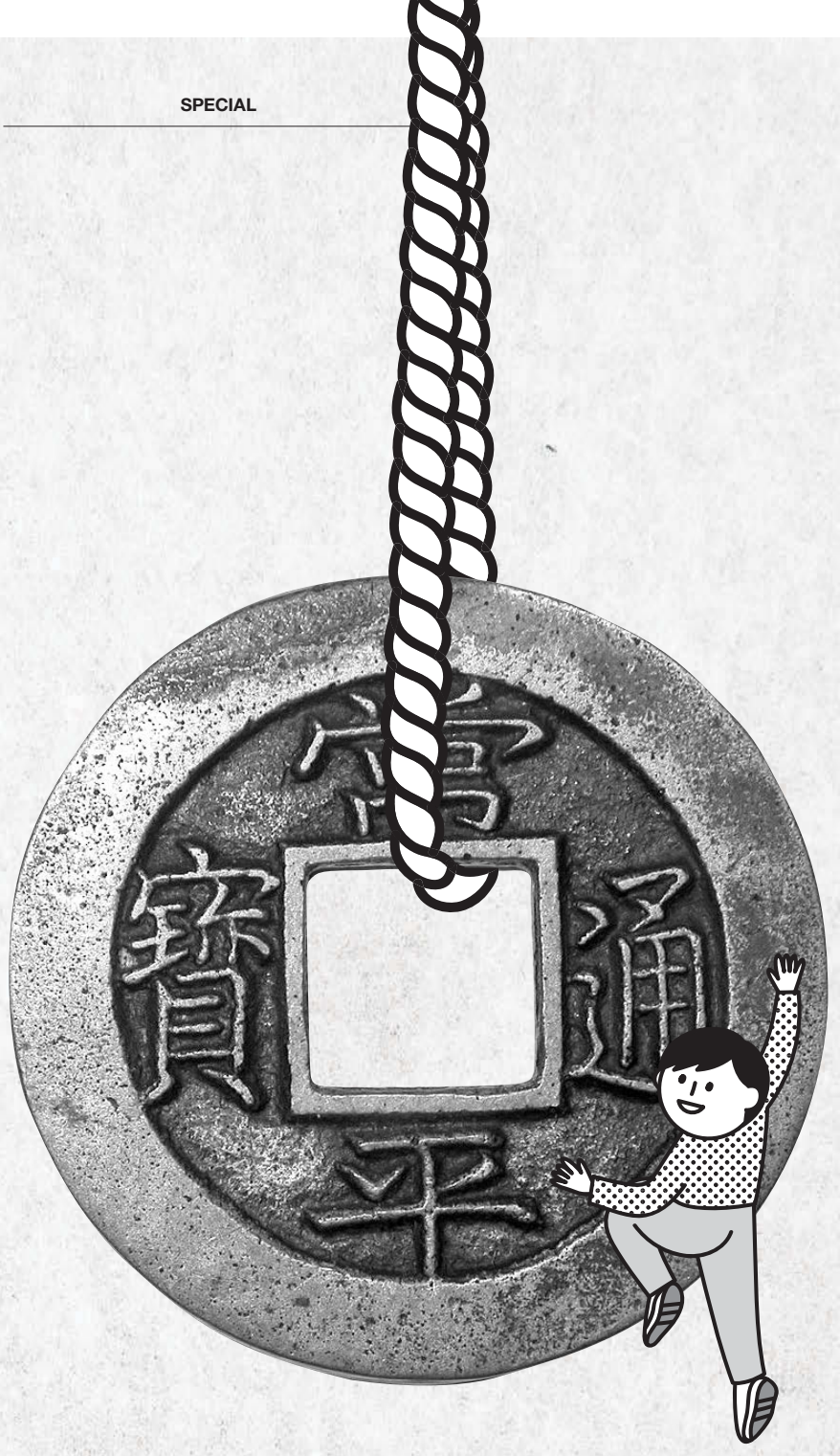
영화예매권 2매(50명)
('한줄인문' 참여자 중 무작위 선정)

스타벅스 자바칩 프라푸치노(60명)
(본인이 남긴 한줄인문 캡쳐후 자신의 SNS에 인증)

▶2차경품 안내

시 상	상 품
인문360상(1명)	문화상품권 30만원/기념핸드폰케이스
공감상(2명)	문화상품권 20만원/기념노트
센스상(3명)	문화상품권 10만원/기념엽서

나랏돈 사용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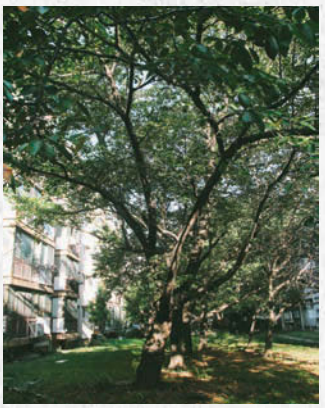


"오랜만에 재밌는 일 좀 해보려고 했는데. 돈, 그놈의 돈이 사사건건 발목을 잡네? 회의 한번 하려면 커피값에 밥값에 교통비까지 들고. 인쇄비, 대관비는 또 왜 이렇게 비싸. 결국, 이렇게 말만 하다 끝나는 건가"… 싶을 때 유용하게 활용할 수 있는 제도가 있다. 각종 국가 기관에서 운영하는 '청년 지원 제도'가 바로 그것! 약간의 귀찮음만 감수한다면, 친구들과 책을 내볼 수도, 직접 팟캐스트를 만들어볼 수도 있다. 여러분 쥐똥만 한 아르바이트 월급에서도 세금을 떼가는데! 우리도 나랏돈 한번 알차게 이용해봅시다.

EDITOR 김혜원 hyewon@univ.me **INTERN** 최은유 **ILLUSTRATOR** 남미가

나만 몰랐던 나랏돈 사용법 ①

모임비로 100만원을 지원받았어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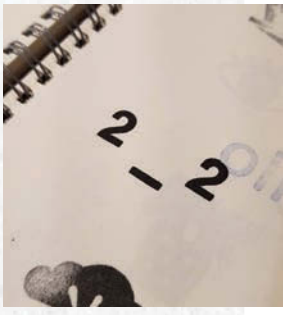


좋아하는 장소를 찍고 기록했어요 곳간

곳간은 대학 때부터 친하게 지내던 세 명이 만든 모임이에요. '친구의 친구가 '청년참'(서울시 청년허브 지원 사업, p.35 참고)에 선정돼서 평소엔 생각만 했던 재밌는 일을 실천했다'는 이야기를 들었어요. 어차피 맨날 만나서 노는데, 우리도 해보자 싶었죠. 셋 다 동네를 좋아하고 마침 저희 중 한 명이 사진 찍는 데 취미가 있으니, 공간을 기록하는 프로젝트를 계획해 지원했고 어렵지 않게 선정됐어요. 명확한 콘셉트('좋아하는 공간이 타의에 의해 사라지기 전에 기록해야 한다')가 생기니까, 귀찮아서 굳이 가보지 않았던 동네도 발품을 팔아 돌아다니게 되더라고요. 주제를 정해두니까 평소보다 더 깊은 이야기를 나누게 되었고요. 다음에 또 지원비를 받게 된다면, 홍보를 좀 열심히 해서 더 많은 사람과 우리의 결과물을 나누고 싶어요.

생활 한복을 직접 만들어 봤어요 홍익한복

우연한 계기로 한복에 관심이 생겼는데, 10만원 가까이 되는 생활 한복을 사 입기에는 부담이 있었어요. 그때 사촌 언니가 '청년참'을 알려줬어요. 지역사회에 도움이 되는 활동을 하는 그룹에 100만원을 지원해준다고 하길래…! 얼른 친구들을 섭외했죠. 생활 한복을 보여주면서 예쁘지 않냐고, 같이 만들어서 입어보자고 했더니 흔쾌히 승낙했어요. '널리 이롭게 한복을 알리자'는 취지 아래 인터넷을 보면서 한복을 직접 만들고, 그 과정에서 터득한 요령을 오픈 클래스를 통해 공유했는데, 오신 분들이 다들 좋아해주셔서 무척 뿌듯했어요. 지원 사업은 끝났지만, 앞으로도 틈틈이 '홍익한복'이란 이름으로 활동할 계획이에요.



졸업 전 뭐라도 하자 싶어 만든 모임 이것이프로젝트

이것이프로젝트는 졸업을 앞두고 시작한 프로젝트예요. 셋 다 앞으로 어떻게 살아야 할지 모르겠어서 혼란스럽던 중이었어요. 저희끼리 고민할 게 아니라 뭐라도 해보자는 심정으로 다양한 삶의 모습을 인터뷰 했어요. 자본 없이 시작한 프로젝트다 보니, 커피 값부터 밥값까지 재정적으로 부담스러워서 '청년참 모임비 지원 사업'에 신청했고요. 선정되고 나니, 전에는 대관비가 부담되어 선뜻 기획하기 어려웠던 규모의 행사도 진행할 수 있었어요. 그렇게 진행한 질 좋은 행사를 보고, 많은 분이 참여 의사를 밝혀주어서, 여전히 재미난 활동을 계속하고 있답니다.

EDITOR 김혜원 hyewon@univ.me

도서지원금을 활용해 요괴 서가를 만들었어요 돌곶이요괴협회

저희는 요괴와 관련된 민담 또는 설화를 공부하는 학교 동아리였어요. 2주에 한 번씩 요괴 스터디를 진행해. 각자 재밌게 본 요괴 작품을 소개하고, 조사해온 요괴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시간을 가져요. 그렇게 공부한 것들을 SNS에 올렸더니 학교 외부 분들도 관심을 보여주셔서, 다양한 구성원이 모인 지금의 요괴협회가 됐어요. 오래전부터 요괴 도서를 갖추고, 읽고 싶은 사람에게 대여해줄 수 있는 '요괴 서가'를 만드는 게 목표였는데, 책을 여러 권 구비하려면 비용이 꽤 들잖아요. 마침 도서지원비를 받을 수 있는 지원 사업이 있다고 해서 신청하게 됐어요. 과정이 어려울 줄 알았는데, 모임 성격이 분명하다 보니 어려움 없이 선정됐어요. 지원금 덕분에 서가의 책이 풍부해지고 스터디에도 활력이 생겼어요. 그때의 동력을 바탕으로 요괴를 소개하는 독립 출판물을 만들기도 했답니다. 짜잔.

우리나라의 아름다움을 찾아다녔어요 러빙코리아

'러빙코리아'는 대한민국의 숨은 보물(장소, 이야기, 문화 등)을 찾아 전 세계 친구들에게 알리기 위해 만든 모임이에요. 우리가 외국에서 현지인이 소개해주는 숨은 장소에 매력을 느끼는 것처럼, '현지인으로서 유명 관광지 말고, 한국의 숨은 아름다움을 보여줘야겠다'고 생각했어요. 초반에는 스토리가 있는 투어 콘텐츠 제작을 위해 발품을 많이 팔았는데, 모든 활동에는 돈이 필요하더라고요. 이동도 해야 하고, 밥도 먹어야 하고. 그러던 와중에 지인에게 '청년참 모임비 지원 사업'을 소개받았어요. 금전적인 지원을 받은 덕분에, 서울 말고 다른 지역에 방문하는 프로그램을 기획할 수 있었어요.

옥탑방에 친구들을 불러 놀았어요 옥상프로젝트

명확한 꿈도 없이 방황하던 차에 문득 '나 같은 사람도 많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 옥탑방에 친구들을 불러 모으기 시작했어요. 모여서 같이 이야기를 하다 보니까 서로에게 힘이 되더라고요. 처음에는 제 친구들만 놀러 왔었는데, 나중에는 개인적인 친분이 없는 분들도 신청하시더라고요. 그래서 더 많은 사람들과 같이하면 좋겠다고 생각했고, 그 과정에서 경제적인 지원을 받을 수 있는 '청년참'에 지원하게 됐어요. 덕분에 돈 걱정을 조금이나마 덜 수 있었죠. 그 후에는 여행 영상 제작, 공연, 웹드라마 제작 등 다양한 활동을 함께하고 있어요.

나만 몰랐던 나랏돈 사용법 ②

장소를 지원받았어요

INTERN 최은유 metaphor@univ.me

땅을 지원받아 농사를 지었어요 노들유령

청년허브에서 진행하는 수업을 듣고 있던 어느 날 선생님께서 노들섬에 가서 농사 한번 지어보라고 하셨어요. 갈현텃밭, 용산텃밭 등 시에서 운영하는 텃밭이 여러 곳 있는데, 지금은 사라진 '노들텃밭'은 신청서를 쓰고 선정된 팀에 한해 들어갈 수 있었거든요. 노들섬은 서울시에서 거의 '버린 땅' 취급 받는 곳인데요, 수업을 함께 듣던 친구 중 그곳에 관심이 있는 애들이 모여 '노들유령'을 만들었어요. 땅을 지원받고, 모종이나 비료 같은 것만 개인 비용으로 부담했습니다. 벌레, 진드기, 잡초가 워낙 많아 사실 농사는 다 망쳤어요! 하지만 저희는 이후에도 같은 멤버로 이런저런 프로젝트를 꾸준히 진행하고 있어요. 노들유령이 아닌 '대봉감'이라는 이름으로 이혼 여성 기록 프로젝트를 구상해 지원받았고, 불광 지역에서 실버 댄스 하시는 분을 모셔와 춤을 배우고 '불광 콜라텍 파티'를 열기도 했답니다.

언니와 함께 전시를 열었어요 매자송

'매자송'은 송자매를 거꾸로 한 이름으로, 저와 친언니가 함께 꾸린 전시 활동입니다. 미술을 전공하는 언니가 졸업을 앞두고 있었고, 학생 신분으로 전시를 열기에는 쉽지 않은 환경이었지만, 서교예술실험센터에서 주관하는 전시 지원 사업인 '쉐어 프로젝트 : 실험실' 덕분에 목표를 이룰 수 있었죠. 덕분에 접근성 좋은 홍대에 있는 전시 공간과, 전시에 필요한 테이블이나 조명 같은 기본적 세팅, 빔프로젝터 등을 지원받았어요. 사실 저는 미술 전공자가 아니거든요. 전문성을 요하는 다른 전시 지원 사업과 달리 학력이나 경력이 아닌 내용의 독창성을 더 중요하게 보았던 것 같아요. 저희처럼 아이디어는 있지만, 공간이 없는 분들에게 추천해요!

우리만의 아지트를 꾸몄어요 상모

'상모'는 '상상하는 모든 것이 이루어지는 공간'의 줄임말입니다. 예전에는 파티룸이라는 개념이 흔하지 않아서 친구들을 만나면 음식점, 카페, 술집에 가는 것이 전부였죠. 소중한 사람들과 시간을 보낼 수 있는 공간을 만들고 싶어서 '상모'를 시작했습니다. 시간 단위 대여도 하고 있고, 소규모 모임이나 파티도 자체적으로 진행하고 있어요. 공간 대여를 통한 수익이 조금 있었지만, '뒷북신년회'처럼 여럿이 함께하는 파티나 모임을 열 때는 필요한 재료나 음식값이 만만치 않았어요. 그래서 지원사업 '청년참'에 도전했고, 다행히 선정되었어요. 덕분에 저희만의 공간에서 부족함 없는 시간을 보낼 수 있었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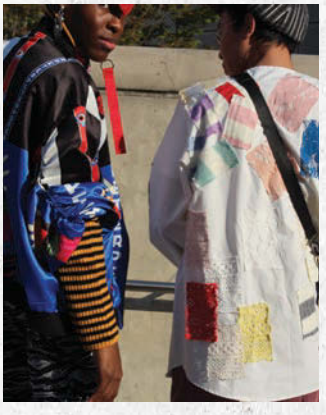
나만 몰랐던 나랏돈 사용법 ③

콘텐츠 제작비를 지원받았어요

학생 에디터 문소정 moonsojeong@naver.com

패션쇼를 진행했어요 창신패션위크

창신동은 동대문에서 나온 원단으로 옷을 만드는 봉제 마을이에요. 어떻게 보면 진정한 패션 피플은 창신동의 봉제인들인데, 아무도 모르잖아요? 그래서 DDP의 서울패션위크를 대신할 창신패션위크를 기획했어요. 창신동의 봉제 장인에게 봉제를 배워 직접 옷을 만들고, 창신동을 배경으로 화보 촬영도 하고, 패션쇼도 진행했어요. 아무래도 행사를 진행할 때 돈이 필요하다 보니 '청년활활'이라는 지원사업의 도움을 받았고요. 물론 지원금을 사용하는 게 처음이라 시행착오도 있었죠. 행사를 마친 후 세무서에 정산 서류를 보내 확인하니까 지출이 반려된 항목이 꽤 있더라고요. 규정에 맞지 않는 지출이 있었던 거예요. 적은 금액이긴 하지만 결국 사용한 예산 일부를 돌려줬어요. 그래도 지원 사업 덕분에 창신패션위크를 성공적으로 진행할 수 있었으니 좋은 경험이었어요.



팟캐스트를 만들었어요 대학썰전

대학생의 입장에서 대학의 문제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팟캐스트를 만들었어요. 사실 다들 비슷한 문제를 겪고 있잖아요. 학과 통폐합, 수강신청, 등록금. 대학 문제만 다루는 미디어를 만들면 다들 공감할 수 있겠다 싶어서 프로그램을 기획했죠. 그런데 꽤 많은 돈이 필요하더라고요. 녹음하는 장비도 필요하고, 교육도 받아야 하고, 홍보도 해야 하고…. 그래서 마을 미디어 활성화 사업에 신청해 지원금을 받았어요. 경쟁률이 꽤 높다고 알고 있는데, 저는 팟캐스트 교육기관인 '노원유쓰캐스트'에 소속되어 있었고, 그 단체가 꾸준히 활동하고 있다 보니 선정될 수 있었던 것 같아요.

친구들과 책을 냈어요 lost and found

저희는 대학을 졸업하기 전에 재미있는 걸 하고 싶어서 독립출판 프로젝트를 시작하게 되었어요. 2주에 한 번씩 합평회를 하면서 글에 대해 서로 피드백 해주고, 인디자인이라는 프로그램으로 내지와 표지를 편집하는 것까지는 순조로웠는데, 인쇄비가 문제였어요. 사비를 들여서 각자 나눠 낸다고 해도 적어도 20만원, 많으면 40만원까지 써야 했는데, 대학생에겐 큰돈이니까. 고민하던 차에 학교(연세대)에서 창업동아리를 모집한다는 것을 알았고, 운 좋게도 선정돼서 인쇄비를 지원받을 수 있었죠.

경험자의 나랏돈 알차게 사용하는 ⓉⒾⓅ

EDITOR 김혜원 hyewon@univ.me

모집 시기를 항상 체크하자

매년 청년 지원 사업을 운영하는 단체들이 있다. 홈페이지를 즐겨찾기에 저장해두고 주기적으로 방문해서 공지 사항을 확인하자. SNS 계정을 팔로우해 놓으면 그때그때 새로운 소식을 받아볼 수 있어서 좋다. 국가 예산이 편성되는 3월, 4월에 모집하는 곳이 많으니 참고할 것.

사업 목표에 맞게 지원서를 쓰자

국가 지원 사업에는 어떤 팀이 선정될까? 능력이 뛰어난 팀? 경력이 화려한 팀? 아니다. 대부분의 국가 지원 사업 선정 기준은, 해당 사업의 목표에 얼마나 부합하는지다. 지원 사업의 목표를 정확하게 파악하고, 방향성에 맞게 지원서를 작성하자. 작년에 어떤 성격의 프로젝트가 선정됐는지 찾아보면 유용한 참고 자료가 될 것이다.

행정 업무를 담당할 꼼꼼한 친구를 섭외하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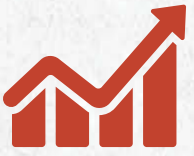
지원 사업에 선정된 팀들이 가장 힘들었던 점으로 꼽는 것이 바로 행정 업무다. 나랏돈을 사용하는 일(!)이기 때문에 영수증, 활동 보고서 등 제출해야 할 서류가 많다. 팀을 꾸릴 때 행정 업무를 잘 처리할 수 있는 꼼꼼한 친구를 섭외하자. (행정 담당, 섭외 담당, 사진 담당 등 전문 분야가 다른 사람들끼리 모여 팀을 이루는 것이 베스트!)

지원금 사용 규정을 숙지하자

지원 주체에 따라, 지원금을 사용할 때 지켜야 할 세부 규정이 다르다. 예를 들어 '도서 구매비가 지원 되지만, 한 권당 12000원이 넘으면 안 된다'는 세부 규정이 있을 수도 있고, 지출 카테고리가 정해져 있어서 꼭 필요한 품목을 구매하지 못할 수도 있다. 규정에 맞지 않는 예산을 사용하면, 증빙 과정에서 그에 해당하는 돈을 돌려주어야 할 수도 있다.

우리 팀 이외의 다양한 사람을 만나보자

지원 사업으로 선정되고 나면, 금전적인 지원 말고도 도움을 받을 수 있는 부분이 무엇인지 적극적으로 찾아보자. 한 예로, 모임비를 지원하는 '청년참' 프로젝트에선 한 달에 한 번 지원 팀들을 모아 커뮤니티 형성 기회를 제공한다. 관심사, 나이, 출신이 모두 다른 다양한 사람을 만나 새로운 경험을 할 수 있어서 좋았다는 후기가 많다.



지속 가능성을 고민하자

다수의 경험자가 지원이 끝나고 나서 자립하지 못한 점을 아쉬워했다. 금전적인 지원 덕분에 도전적으로 활동할 수 있었으나, 경제적인 독립을 염두에 두지 않아, 이후에 활동 규모를 줄이게 된 팀도 많았다. 지원금을 받아 예산이 여유로울 때, 프로젝트의 지속 가능성을 위한 준비를 해두자.

알아두면 좋을 청년 지원 사이트

INTERN 최은유 metaphor@univ.me

청년허브
www.youthhub.kr

청년 커뮤니티의 시작과 활동에 필요한 비용과 공간을 지원한다. 주요 사업은 3인 이상의 청년이 모여 활동하는 데 필요한 모임 비용을 최대 100만원까지 지원하는 '청년참'. 3월 말 각 지원 사업의 향후 일정이 공지될 예정이니, 홈페이지를 수시로 방문할 것!

청년청
www.youthfield.kr

서울시에서 지원하는 청년 활동 공간. 1층 코워킹 공간, 공유 주방은 운영 시간에 한해 누구나 이용 가능하다. 그 외의 곳은 입주 단체의 전용 공간으로, 보증금 없이 저렴한 월 관리비가 큰 장점. 주로 SNS를 통해 관련 소식이 올라오니, 구독하고 호시탐탐 기회를 노려보자.

무중력지대
www.youthzone.kr

청년들을 구속하는 사회의 중력에서 벗어나 누구나 자유롭게 활동할 수 있는 공간. G밸리점과 대방동점, 최근 개관한 양천점까지 총 3곳을 운영 중. 회의, 휴식, 공부, 독서, 요리 등 다양한 목적에 맞는 공간들이 있으니, 필요에 따라 이용해보자.

서울시청년활동지원센터
www.sygc.kr

서울시에 거주하고 있는 만 19~29세 미취업 청년을 대상으로 최소 2개월에서 최대 6개월까지, 매월 50만원씩 지급하는 '2018 서울시 청년수당' 사업을 진행 중이다. 최근 1차 신청이 종료되었고, 4월 이후에 2차 모집이 예정돼 있다.

미트쉐어 / 서울특별시 NPO 지원센터
www.meetshare.kr

긍정적 사회 변화를 만들 수 있는 공익 활동 프로젝트를 지원한다. 지원 범위는 프로젝트 당 최소 50만원에서 150만원. 4월부터 9월까지 한 달에 한 번, 서류 심사와 그룹 인터뷰를 통해 선정한다. 작지만 멋진 일을 하고 싶다면, 주저 말고 도전해보자!

서교예술실험센터
cafe.naver.com/seoulartspac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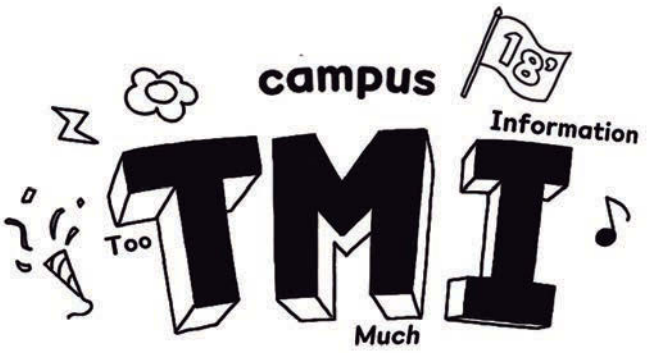
공간지원사업 '쉐어프로젝트 : 실험실'을 통해 상상을 실험하고 전시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한다. 복잡하고 까다로운 지원제도의 문턱을 낮추고자 시작된 '작은예술지원사업 : 소액多컴'은 소소하지만 창의적인 프로젝트를 지원한다. 홈페이지에 지난 사업 결과가 잘 정리되어 있으니 참고할 것.

콘텐츠코리아랩(CKL)
www.ckl.or.kr

참신한 아이디어는 있는데 제작에 필요한 장비와 공간이 없어서 실현하지 못했다면 주목하자. 당신의 상상이 창작으로 이어지도록 시설 및 장비, 다양한 프로그램을 체계적으로 지원한다. 서울을 비롯하여 인천, 경기, 충남, 전북, 광주, 경북, 대구, 부산 등의 지역 기반형 랩이 전국에서 운영 중이다.

시청자미디어재단
www.kcmf.or.kr

지역과 마을을 소재로 한 콘텐츠 제작을 지원하는 '마을미디어교육 지원 사업'의 참여자를 오는 23일까지 모집 중이다. 7개 지역 시청자미디어센터(부산, 광주, 강원, 대전, 인천, 서울, 울산)에서 신청 및 접수를 받고 있다. 자신이 살고 있는 지역 기반 콘텐츠 제작에 관심이 있다면 도전해보자.



홍익대 편

01
홍익대 정문은 '세계에서 가장 큰 대학교 정문'으로 기네스북에 등재되어 있다

02
홍익대는 7400억이 넘는 누적 적립금으로, 부자 학교 1위(^^)에 등극했다

03
홍익대는 학생 1인당 교내 장학금 수여 금액이 가장 높은 학교다

04
홍익대의 상징 동물은 '소'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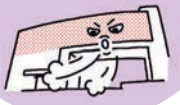
05
홍익대는 국내에 서울, 조치원, 대학로, 화성 등 총 4개의 캠퍼스가 있다

06
홍익대 학생들은 주로 홍대입구역이 아닌 상수역을 통해 등하교한다

07
건물들이 미로처럼 이어져 정문부터 후문까지 비를 맞지 않고 갈 수 있는 루트가 있다. 이에 '홍그와트'라는 별명이 붙었다

08
홍익대 뒤 와우산에는 군 부대가 있다. 교직원 식당에서 볼 수 있다

09
홍익대 정문인 홍문관에서 부는 강한 바람을 '홍문풍'이라고 부른다



10
홍익대 정문에 일베를 상징하는 손 모양 조형물이 세워진 적이 있다

11
홍익대 학생들은 공통 교양 6개를 들어야 졸업을 할 수 있는데, 이를 '드래곤볼을 모은다'고 표현한다

12
1학년은 일반 휴학을 신청할 수 없다

13
장학금 요건을 충족하려면 매 학기 봉사 시간 15시간을 채워야 한다. +헌혈 1번 하면 봉사 시간 15시간을 준다

14
수업이 1시간 단위이다. 연강이 있으면 무조건 뛰어야 한다

15
공대에서는 과탑들에게 표창(이력서나 추천서에 기재되어 외부 공신력을 가짐)을 수여하는 '딘스 리스트' 제도를 시행하고 있다

이게 뭐라고 재밌냐!
읽다 보면 시간 순삭되는 캠퍼스 알쓸신잡 홍대 편.

16
전공이나 교양 수업이 영어로 진행될 경우 1학점을 추가로 준다(최대 5학점까지!)

17
전자 출결을 할 때는 교수님이 알려주시는 인증 번호를 입력해야 한다

18
모든 '싸강' 강의록들은 학생회관 1층에서 판다

19
홍익대 기숙사 문은 자정이 되면 닫힌다

20
홍익대는 여자 휴게실과 남자 휴게실이 각각 존재한다

21

홍익대에는 유명한 '케냥이(K동 고양이)'가 있다

22
F동 강의실 천장이 붕괴된 적 있다

23
C동 8층에는 원래 우동 가게가 있었는데 'C8 우동'이라 불렸다

24
매년 학과끼리 붙는 축구 대회 이름은 '와우컵'이다

25
볼빨간사춘기의 '우주를 줄게' 뮤비는 홍익대에서 찍었다

26
재작년 축제부터 중앙 무대 앞에 '홍대생 존'이 만들어지기 시작했다

27
래퍼 로꼬와 그레이는 홍익대 힙합동아리 '브레인스워즈'에서 처음 만났다

28
래퍼 우원재도 '브레인스워즈'에서 활동했다

29
가수 로이 킴의 아버지는 홍익대학교 토목공학과 교수님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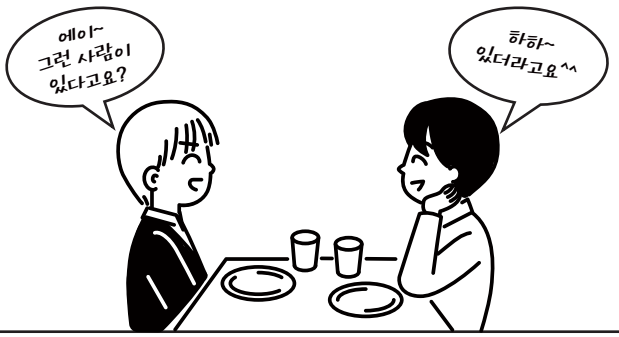
30
홍익대에는 영원한 미소라는 조형물이 있는데, 학생들은 이를 "영미!!!!!!"라고 부른다

EDITOR 윤예림 yyr901026@gmail.com
INTERN 최은유
DIRECTOR 김솔
ILLUSTRATOR 김지현

선배와 밥약 할 때 지켜야 할 매너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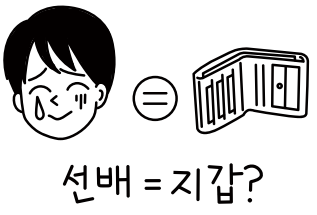
새내기들! 선배들과 밥약 잡느라 바쁘죠? 오늘은 밥 사 주는 선배에게 꼭 지켜야 하는 예절에 관해 이야기해볼 거예요.
배고픈 우리에게 한 끼를 선물해주는 마음씨 좋은 선배들이 언제 기분이 상하는지 정리했어요. 우리, 즐겁게 밥 먹으며 친해져요!

EDITOR 최지석 jskchoi920@gmail.com **INTERN** 최은유 **DIRECTOR** 김솔 **ILLUSTRATOR** 몽미꾸



부탁예절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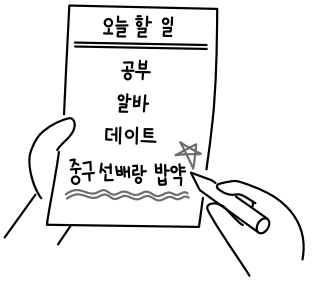
선배가 밥 사 주는 것을
당연하게 여기지 않아요



친해지고 싶어서 호의를 베풀었는데,
호구 취급하면 이것 참 곤란해요

약속예절 1

약속 시간을 까먹지 않아요



3월엔 밥약이 너무 많아 헷갈릴 수 있어요.
약속을 잡은 즉시 적어놓도록 해요

약속예절 2

아무런 말도 없이
친구들을 데리고 가지 않아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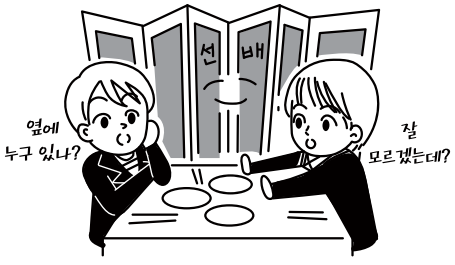
불가피하게 인원이 많아질 것 같다면 꼭 사전에
상의하도록 해요(나 포함 최대 3명을 넘진 말아요)

메뉴선택예절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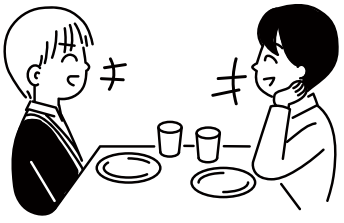
너무 비싼 식당, 2만원이 넘는 메뉴를
고르지 않아요

사 주는 사람의 다음 한 달이 고통스러울 수 있어요.
선배도 학생이란 걸 잊지 말아요

식사예절 1



사 주는 사람을 앞에 두고,
같이 간 친구하고만 떠들지 않아요



밥 사 준다는 말은
선배와 친해지는 시간을 갖자는 뜻이랍니다^^

식사예절 2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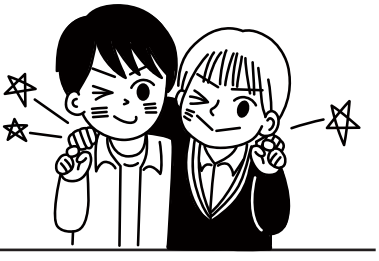
혹시나 맛이 없더라도
지나치게 티 내지 않아요

정말 먹고 싶은 음식이 있다면
메뉴를 확실히 정해서 말해줘요

인사예절

밥을 얻어먹은 후, 며칠 뒤 마주친 선배를
모른 체하지 않아요

1년 뒤, 내가
그 선배의 입장이 되어 있을지도 몰라요



#댕낼대숲
#고정관념
#남자라서_여자라서

댕낼대숲 네 번째 사연은 좋아하는 사람을 만난 뒤로, 남녀를 가르는 고정관념을 다시 생각해보게 되었다는 D가 제보해주었다. 혈액형별 심리 테스트처럼 근거는 전혀 없는 '남자답게, 여자답게' 프레임 7가지. 여자답지 않은 여자, 남자답지 않은 남자는 별로라는 사람들 주목!

EDITOR 원더우먼 wonderwomen@univ.me *빵은 사연 제보 환영
INFORMER 남녀를 구분하는 이상한 고정관념에 질린 D
REFERENCE 제시카 발렌티, 『그런 이중잣대는 사양합니다』, 두시의나무

01

여자치고 잘 하네, 남자치고 못 하네

"저랑 여친은 게임을 하다가 사귀게 됐어요. 당연히 둘이 PC방도 자주 가는데, 친구들 하고 마주치면 꼭 한 소리 들어요. '여자도 PC방 와?' '니 여친, 여자치고 잘 하네', '여친한테 지고 니가 남자냐' 요즘에는 여성 게이머가 많아져서 나아졌을 것 같죠? 친구들 하고 경쟁이라도 붙는 날엔 수위가 더 심해져요."

남자는 이성적이라 게임을 잘하고, 여자는 감성적이라 게임을 못 한다는 절대 법칙이 있나? 대체 왜 한 개인의 특장점을 '여자치고', '남자치고'라며 평가절하하는지. 무엇보다 여전히 '여자치고 잘 하네'가 칭찬인 줄 아는 사람들이 있다. 게임, 스포츠 등 남자들의 전유물(?)이라 여겨지는 분야일수록 더 심하다. 잘하면 여자치고 잘 하는 것이고, 못 하면 여자라서 못 하는 것인 '그런 분야'는 세상에 없다.

> 저는 요리를 좋아하고, 도시락 싸는 걸 즐겨요. 여친은 가구 조립이나 형광등 갈기를 척척 잘 하고요.
> 왜 우리가 '남자가 돼서, 여자가 돼서… 쯧쯧' 같은 소리를 들어야 하는지 모르겠어요. 쇼핑이나 핑크색을 좋아하면
> 남자가 아니고, 축구를 즐겨 보면 여자가 아닌 게 되나요?

04

여자는 헤프다, 남자는 정력이 좋다

"여친이 호주 어학연수를 고민했을 때에요. 응원하면서도 떨어져 있을 생각에 우울해져서 단톡방에 말했더니 여친 단속하라는 거예요. 호주 갔다 온 여자들 다 헤프다면서. 한 소리 하려는데, 우리는 필리핀에 가자더군요. 싸고 좋다면서 서로 정력 왕이라고 지들끼리 'ㅋㅋㅋ'거리기에 톡방을 나와버렸죠."

머릿속에서 '특정 국가-여자-헤프다'가 자동 완성되다니. 일상생활 가능해요? '헤픈 남자'란 단어는 들어본 적도 없는 걸로 봐선, 사회가 여성의 순결에만 집착하는 것 같은데. 아니라고? 그럼 이 질문들에 답해보길. "왜 여성은 성관계를 하면 '더럽다'고 인식될까? 남근은 뭔가를 더럽히는 괴력이라도 지니고 있는 걸까? 성관계를 할 때마다 도덕성이 조금씩 훼손되는 건가?" 『그런 이중잣대는 사양합니다』 p.20

05

여자는 노처녀, 남자는 능력남

"저랑 여친 둘 다 비혼주의자예요. 대부분 저한테는 "나중에 돈 벌어 집 사서 결혼하면 되지" 한다면, 여친은 "비쌀 때 가야 한다"는 말까지 들어서 큰 싸움이 날뻔 했어요. 결혼할 생각 없다는 말, 이해는 한 걸까요?"

똑같이 비혼인 상태로 나이가 들어도 남자는 와인같이 숙성된 능력남, 여자는 폐기처분 직전 케이크 취급을 받는다. 결혼보다 자신에게 더 중요한 가치를 선택한 건 같은데, 왜 이렇게 다를까? "성차별로 유지되는 사회에 이득이 되기 때문이다. 자녀를 두지 않는 한, 전업주부로 자녀를 돌보지 않는 한 '진짜' 여자가 아니라고 하면 여성들은 전통적인 성역할에 충실해야 한다는 압박감을 느끼게 될 테니까." 『그런 이중잣대는 사양합니다』 p.170

02

털털한 여자는 되고, 여린 남자는 안 되고

"여친은 털털한 성격에 운동신경도 좋아서 학창시절부터 인기가 많았대요. 반대로 저는 체구도 작고 운동하는 것도 별로 안 좋아해서 괴롭힘까지는 아니지만 '기지배' 같다고 놀림을 많이 받았어요. 여자애들하고 친하게 지내는 것 자체가 놀림거리가 됐죠."

선머슴 같이 구는 여자애는 되지만, 여자처럼 구는 남자애는 안 된다는 이중잣대는 '남성성'을 우월한 것으로, '여성성'은 부정적이고 열등한 가치로 바라보는 왜곡된 시선에서 나온다. "우선 여성성을, 그리고 나아가서 여성을 존중하는 일에서 시작해야 한다. '계집애 같다'라는 표현을 하는 사람들이 있으면 곧바로 지적하라. (뭔가를 던지거나 울 때) '여자처럼 굴지 마'라는 말을 하는 이가 있다면 펄쩍 펄쩍 뛰어라.'" 『그런 이중잣대는 사양합니다』 p.90

03

여자는 화장 필수, 남자는 단정하면 그만

"피부가 콤플렉스여서 BB크림을 바르는데요. 길거리 다니면 '저 남자 화장했다'는 수군거림을 자주 들어요. 여친은 피부가 좋은 편인데, 스트레스 받으면서도 꼭꼭 화장을 하더라고요. 알바하는 데서 점장이 민낯은 예의가 아니라고, 매일 지적한대요."

미모 관리하는 남자는 오버 같고, 여자는 화장·제모·다이어트·뽕브라까지 다 신경 써야 예의라고 생각하나? 남자건 여자건 타인의 관상용이 되려고 사는 사람은 아무도 없다. 청와대 방문처럼 TPO를 지켜야 할 상황이 아니라면, 하고픈 대로 하고 살면 어떤가. "하이힐을 신고 립스틱을 바르든, 찢어진 청바지를 입고 운동화를 신든 내키는 대로 입고 누가 뭐라고 하든 개의치 마라." 『그런 이중잣대는 사양합니다』 p.68

06

여자의 미래는 남자, 남자의 미래는 성공

"둘 다 취준할 시기라 조언을 받으려고 선배들을 만났는데요. 그 자리에 있는 내내, 저는 '남자는 적어도 자기 명의로 된 집은 있어야 사람 구실하지', 여친은 '여자 팔자는 남자 잘 만나서 취집하는 게 최고야' 소리만 실컷 듣다 왔어요. 저는 문사철 전공이고, 여친은 공대생이라 취업하면 여친 연봉이 훨씬 높을 텐데…."

남자는 돈, 여자는 남자가 가진 돈? 인생의 행복이 돈으로 결정된다면 왜 반대가 되어서는 안 되는데? 21세기에 아직도 중세 시대의 마음을 가진 사람들에게 전한다. "자신을 위해서 뭔가를 하라. 다른 어느 누군가가 아니라 당신 자신을 행복하고 성공한 사람들로 만들어 줄 일들을 말이다. 그리고 물론 신나게 사는 게 가장 중요하다." 『그런 이중잣대는 사양합니다』 p.257

07

여자는 생리하는 거고, 남자는 화가 난 거고

"저도 처음부터 이런 것들이 이상하다고 생각한 건 아니에요. 사귄 지 얼마 안 됐을 때 여친 기분이 너무 안 좋기에 조심스럽게 '그날이야?' 하고 물었다가, 헤어질 뻔했거든요. 그때 고민해보게 됐어요. 남자 선배나 교수님이 기분 나빠 보이면 '화가 났다'고 여기면서, 왜 여친은 예민하고, 감정 기복이 심하고, 신경질적이라고 생각했을까?"

고정관념을 주입해서 가장 이득을 보는 게 누굴까? "잘 생각해보면 사회가 왜 여성의 분노를 억압하려는지 이해가 간다. 여성의 입을 틀어막는 방법보다 더 효과적으로 성차별을 덮어버리는 방법이 어디 있겠는가. 자기 삶에서 일어나는 일에 대해 분노해도 신경질적이라고 매도당할까봐 겁을 낸다면, 세상의 불의에 대해서는 어찌 항변하겠는가." 『그런 이중잣대는 사양합니다』 p.170

을의 하루 - 방송작가 편 -

인터뷰가 끝나고, 어쩐지 눈가가 촉촉해져버렸다. 연예인, PD 그리고 언니(선배) 들에게 3단 콤보로 치이는 '인간 동네북'이자 이 구역의 '슈퍼 을'인 방송작가의 하루가 <인간극장> 속 사연만큼이나 구구절절했으므로. 그렇게 힘들면서 왜 계속 이 일을 하느냐고? 그의 대답은 이랬다….

EDITOR 서재경 suhjk@univ.me
사진출처 KBS2TV <프로듀사>·MBC <마이 리틀 텔레비전>

이번 주 '을'을 소개합니다

How do you do?

4년 차 예능 프로그램 방송작가. 공중파와 케이블 채널의 인기 예능을 포함해 도합 열 한 개의 프로그램을 거쳤다. 힘겨운 막내 시절을 거쳐 어렵사리 서브 작가 타이틀을 달았으나 기쁨도 잠시. 일단은 "못 먹어도 Go!"를 외치는 심정으로 메인 작가를 꿈꾸고 있지만 쉽지 않아 보인다.

하루 일과

10 : 00AM 출근. 가장 먼저 하는 일은 시청률 표 인쇄하기. 시청률이 어느 부분에서 오르고 내려갔는지 표를 보고 체크하며 전날 방송을 모니터링 해야 한다.

11 : 00AM 밤샘의 흔적으로 찌든 사무실을 치우는 것 역시 막내의 몫이다. 청소가 끝날 때쯤이면 작가 언니들과 PD님이 하나둘 출근하기 시작한다. 각종 잡무를 클리어 하고 나면 어느덧 오전이 마무리된다.

01 : 00PM 점심 메뉴 고르기는 감사하게도(?) PD님 담당이다. 식사 후엔 주요 일과 중 하나가 기다리고 있으니, 바로 커피 심부름. 그간 연마한 '뇌트워크'를 바탕으로 언니들의 취향을 저격한 커피 주문을 척척 해내야 한다. "아메리카노 투샷", "라테 벤티 사이즈에 얼음 가득 넣고 돔 뚜껑으로" 이렇게 디테일한 주문까지 꼼꼼히 챙겨야 센스 있는 막내로 거듭날 수 있다는 사실! 퇴근 전까지는 자료 조사-회의-섭외의 굴레를 무한 반복한다.

10 : 00PM 드디어 집에 갈 수 있는 건가. 그러나 방심은 금물! 다음 날 녹화가 있다면 대본 인쇄, 출연자 대사에 형광펜으로 밑줄 그어주기, 소품 체크 등으로 밤을 새우고, 곧장 촬영장으로 향할 수도 있다.(헉헉)

핵심 정보

하는 일 막내 작가는 분당 시청률 체크, 프로그램 모니터링, 촬영 협조 요청, 소품 제작 의뢰 및 관리, 출연자나 전문가 섭외 보조 등 매우 자잘하지만 누군가 꼭 해야만 하는 업무를 주로 담당함. 가끔은 작가 언니들 가방 들고 서 있기, 출연자 비위 맞추기 등 다소 불합리한 일을 해야 할 때도 있음.

초봉 막내 작가의 초봉은 월 100~120만원. 최저임금 인상 후 150~160만원 수준으로 올랐다는 얘기도 들려옴.

업무 강도 주5일 혹은 주6일 출근. 보통 오전 10시부터 오후 10시까지 업무. 녹화 전에는 아예 밤새고 촬영장으로 갈 때도 있음.

근속 연수 불규칙한 생활·강도 높은 업무·인간관계에서 오는 스트레스 등을 이유로 초기 이탈자가 매우 많은 편. 1년을 못 채우고 그만두는 경우가 허다함.

휴가 일수 프리랜서라 정기 휴가 없음. 메인 작가의 재량에 따라 돌아가며 여름휴가를 보내주기도 함.

※이런 PD 없을 주의

입사 꿀팁

채용 공고는 여기서 보세요
KBS 구성작가협의회나 방송아카데미 사이트에 채용 공고가 올라온다. 회원 가입 후 공고를 확인할 수 있다. '미디어잡' 같은 채용 사이트에도 공고가 수시로 올라온다.

이런 스펙이 있으면 좋아요
방송작가에게 필요한 스펙이나 전공이 따로 있는 것은 아니지만, 외국어를 할 줄 알면 좋다. 다른 나라의 프로그램을 분석해보고 고민해볼 수 있기 때문. 해외 촬영 시에도 외국어 능력이 있다면 당연히 유리할 테고.

방송작가는 이런 사람에게 잘 맞아요
막내 작가와 서브 작가 기간은 칠흑같이 어둡고 긴 터널과도 같다. 이 터널을 무사히 벗어나 메인 작가라는 빛을 보기 위해선 일곱 번 넘어져도 여덟 번 일어나는 끈기, 무쇠솥처럼 단단한 멘탈, 튼튼한 체력이 필요하다. 다 갖춘 자에게도 쉬운 길은 아닐 테니 각오하시고!

팩트 체크

방송작가 채용은 어떤 식으로 이뤄지는 거죠?

"크게 세 가지 루트가 있다. ① KBS 구성작가협의회나 방송아카데미 사이트에서 구인 공고를 보고 지원하는 방법 ② 인맥을 통해 추천 받는 방법 ③ 방송아카데미 수료 후 아카데미의 추천을 받는 방법이다. 나는 인맥으로 방송작가가 된 케이스다. 사실 처음엔 PD가 되고 싶어서 제작부에서 일하겠다고 했는데, 작가 팀 인력이 부족하다는 이유로 눈떠보니 막내 작가가 되어 있었다."(먼산)

면접 볼 때 '호갱 지원자'가 되지 않기 위해 꼭 확인해야 하는 것이 있다면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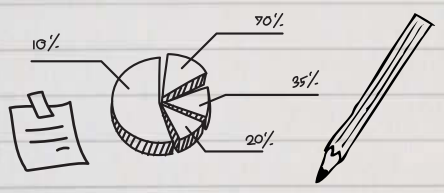
"'기획 페이'라고 들어는 봤나. 프로그램 시작 전, 기획 단계일 때 지급하는 페이를 일컫는 말이다. 일부 방송국X들은 기획 페이를 주지 않는 경우도 있어 지급 여부를 반드시 물어봐야 한다. 정규 프로그램일 경우엔 본사 제작인지 외주 제작인지, 연차마다 페이 수준이 어떤지, 작가는 총 몇 명인지 확인하는 것도 필수다. 방송작가가 되고 싶다는 생각만으로 '아묻따' OK 해버리면 버티기 힘들다. 되는 것보다 남는 것이 더 힘든 게 작가의 길임을 명심하자."

몇 년 차부터 대본을 쓸 수 있어요?

"우리끼리는 작가를 '잡가'라고 부른다. 그만큼 잡무가 많다. 특히, 막내 작가는 커피 심부름부터 출연자 대사에 형광펜으로 밑줄 긋는 일까지 잡무의 A to Z를 도맡는다. 대본은 서브 작가가 되면 쓸 수 있다. 개인에 따라 편차가 있지만, 예능의 경우 만 1~2년 정도 막내 작가 시절을 거친 후 서브 작가가 되는 편. 메인 작가는 거의 10년 이상 경력을 가진 이들이 대다수다."

메인 작가가 되면 박봉 탈출 가능한가요?

"내 첫 월급이 딱 100만원이었다. 하하. 최근에 최저임금이 오르면서 막내 작가의 페이가 150~160만원 수준이 됐다는 얘길 듣긴 했다. 3~4년 차부터 급여가 조금씩 인상되는데, 그래봐야 200만원을 못 버는 경우가 많다. 이 모든 박봉의 세월을 인내하고 메인 작가가 되면 확실히 돈을 많이 벌 수 있긴 하다. 회당 페이가 100~200만원 수준으로 훌쩍 뛰고, 한 달에 400~800만원 정도 벌 수 있게 되거든. 게다가 메인 작가들은 프로그램을 2개 이상 맡을 수 있어서 맘만 먹으면 고수익을 노릴 수 있다. 그때까지 버틸 수만 있다면."



고단한 밥벌이의 현장.jpg
(feat.기미작가)

결방하거나 파업할 때 월급 못 받는다던데… 실화인가요?

"스포츠 중계 등으로 결방되거나 지난해처럼 파업이 있을 경우 월급은 '0원'이다. 작가는 방송이 나가야만 페이를 받을 수 있기 때문. 대신 '재방료'와 '네트료'가 있다. 재방송이 나가거나 지역 방송사에 프로그램이 송출될 경우 받는 페이다. 다만, '한국방송작가협회'에 가입해야 받을 수 있는데, 낮은 연차들은 해당 사항이 없다. 예능 작가의 경우, 5년 차 이상 작가들만 협회에 가입할 수 있다."

연예인과 짝신이 될 수도 있나요?

"방송작가가 되면 연예인에 대한 환상이 와장창 깨진다. 그렇다. 방송작가와 연예인은 그저 철저한 비즈니스 관계이자 같은 업계 동료일 뿐이다. 회식할 때 친해지면 되지 않느냐고? 다른 테이블에 앉는다! 그저 이름이나 제대로 불러주면 고마울 따름이다. 물론 예외는 있다. 오랜 기간 같은 프로그램을 하며 호흡을 맞췄을 경우, 짝친까진 몰라도 연예인과 친해질 수 있는 기회가 생기기도 한다."

프로그램을 옮길 때 PD를 따라 가는 건가요?

"이거야말로 케바케다. PD에게 다음 작품 제의를 받고 따라가는 경우도 있고, 선배 작가들의 부름을 받아 프로그램에 합류하기도 한다. 연차 높은 메인 작가들이 '주변에 괜찮은 애 없니?'하고 물으면 그때부터 작가들 단톡방 이곳저곳에서 '괜찮은 애' 물색이 시작된다. 바닥이 워낙 좁다 보니 메인 작가들끼리 '얘 어떠냐'며 전화를 주고받기도 한다. 그래서 막내 작가들은 미래를 위해 작가 언니들의 눈치를 볼 수밖에 없다."

이렇게 힘든데 왜 계속 방송작가를 하는 거죠?

"참 고단하지만 그만큼 애틋한 직업이다. 함께 일하는 선배들이 좋으면, 그들과 같이 결과물을 만들어냈다는 생각만으로도 보람차다. 폭풍 눈물 끝에 터득한 센스를 발휘해 '넌 내가 만나본 막내 중에 세 손가락 안에 든다'는 평을 들었을 땐, 정말 죽어도 여한이 없을 것 같았다.(오열) 본방을 사수한 뒤 엔딩 크레디트에 오른 내 이름을 찾아보는 것도 쏠쏠한 즐거움이다. 내가 낸 의견이 방송에 반영됐는데, 그 부분에서 모두가 빵빵 터질 때! 그 쾌감은 느껴보지 않고는 논할 수 없다. 이런 마약 같은 순간들을 끊지 못해 결국 여기까지 와버렸다. 하하."

마음만으로는 되지 않습니다

가끔 기분 전환을 하러 꽃시장에 간다. 마음에 드는 화분을 하나 고르고, 어떻게 키우면 될지 물어본다. "반그늘이 제일 좋아요. 물은 일주일이나 열흘에 한 번 겉흙이 말랐다 싶을 때 주시면 되고." 아, 반그늘, 겉흙, 쉽네… 일 리가 없고, 전혀 알아듣지 못한 채 되묻는다.

"그러니까 물은 일주일에 한 번이요?"

"네. 겉흙이 완전히 말랐다 싶을 때 흠뻑 주는 게 좋아요."

그리고 두어 달 뒤, 화분 앞에서 또다시 상심해 있는 나를 발견한다. 새로 들인 화분이 맥없이 죽고 나면 마음도 축 처진다. 분명 꽃집에서 배운 대로 일주일에 한 번씩 물도 주고, 햇볕도 적당히 쬐어주었는데…. 하라는 대로 다 했는데도 이 모양인 걸 보면 나는 어쩔 수 없는 연쇄 살초마인가 보다고 스스로를 단념하게 되는 것이다. 그렇게 몇 개의 식물을 떠나보내고 난 뒤, 깨달은 게 있다.

가만 되짚어 보면 꽃집 주인들의 말은 기계적으로 일주일에 한 번 물을 주란 게 아니었다. "겉흙이 완전히 마른 게 보이면 주세요." 그건 이 나무가 과습에 약한 편이므로 조금 건조하게 키우라는 말. "잎 가장자리가 쪼글쪼글해지면 물이 필요하다는 뜻이에요." 물 주는 날짜를 딱 정해놓기보다 계절에 따라 습도에 따라 달라지는 잎의 상태를 살피라는 말. "햇볕이 너무 강하면 붉게 변해요." 볕이 너무 세진 않은지 때때로 식물의 안색을 들여다보아야 한다는 말.

그러니까 가까이 두고 꼬박꼬박 물을 주면서도, 정작 그 식물이 잘 크고 있는지 관심을 두지 않기란 얼마나 쉬운지. 그 정도 관심도 못 기울이면서 나는 식물을 키운다고 생각할 때가 많았다. 너무 목마르거나 햇볕이 뜨겁다고 내내 말을 걸고 있었던 식물을 모른 채 지나치면서.

예전엔 '마음이 있으면 되지'라고 생각했는데 지금은 마음을 옮겨놓은 행동이 훨씬 중요하다는 생각을 한다. 내 돈 주고 식물을 사서 집안에 들였으니 내겐 당연히 식물을 아끼는 마음이 있다고 생각했지만, 그건 어디까지나 생각일 뿐이었다. 아끼는 마음도 행동으로 옮겨지지 않으면 그다지 소용이 없었다. 표현하지 않은 마음은 사실 세상에 없는 것과 마찬가지기 때문이다. 그건 궁색한 변명과 자기 합리화가 필요할 때 꺼내 드는, '나만 알고 있던' 마음에 그칠 때가 더 많으므로.

내 마음 알지?
아니 모르겠는데
1도 모르겠는데

그런 생각을 하고 돌아보니 정말 그랬다. 생일 잊어서 미안해, 근데 마음은 그런 게 아니었어. → 진짜 마음이 있었다면 잊지 않았을 것이다. 섭섭하게 해서 미안해, 그러려고 했던 게 아닌데. → 애초에 섭섭할 일을 만들지 않는 게 어땠을까. 나 원래 이런 거 잘 못 하는 거 알잖아. → '원래'라니… 그냥 내가 그러지 않는 게 편하니까 노력을 하지 않았던 것뿐이다.

그러니까 그런 말 뒤에 숨어서, 보이지도 않는 '마음' 뒤에 숨어서, 보이는 행동을 자꾸 변명하는 내가 보였다. 어느 날은 엄마의 생일 케이크를 고르려다 한참을 서 있었다. 엄마가 좋아하던 게 고구마 케이크였더라, 생크림 케이크였더라? 내가 고민하는 줄로만 알고 친구가 말했다. "그냥 엄마가 좋아하시는 걸로 사." 그러니까… 그걸 모른다는 게 내 문제야….

내 마음이란 고작 그런 것이었다. 생일을 챙기려고만 할 뿐 정작 그 사람이 좋아하는 것도 모르는. 더 나쁜 건 다음 해에도 같은 고민을 한다는 것이다. 그러면서 잘도 "내 마음 알지?"라고 말한다. 그런 마음을 누가 알겠는가. 미안해서 둘러대는 말이라는 건 아주 잘 알겠다.

누군가를 좋아하고 그 누군가에게 마음을 쓴다는 건, 그 사람에 대해 더 많은 TMI(Too Much Information)를 가지고 있다는 말과 다르지 않을 것이다. 그 사람이 지금 어떤 마음 상태인지, 무엇을 좋아하고 또 무엇을 가리는지, 요즘 무엇이 필요하다고 했었는지, 이것 둘 중에 그 사람이라면 무엇을 고를지. 사소하지만 사실은 제일 중요한 그런 것을 알려고 해야 한다. 그러지 않으면 물도 잘 줬는데 왜 시들어버린 거냐고 애꿎은 식물만 탓하는 사람이 되겠지.

"내 마음을 궁금해하는 사람을 곁에 둬야 한다. 그리고 나도 상대의 마음을 궁금해해야 한다. 나에 대한 마음을 궁금해하는 것 말고 그냥 상대의 마음이 궁금해야 한다. 우리는 궁금해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배우지 않았다. 그게 얼마나 따뜻한 경험인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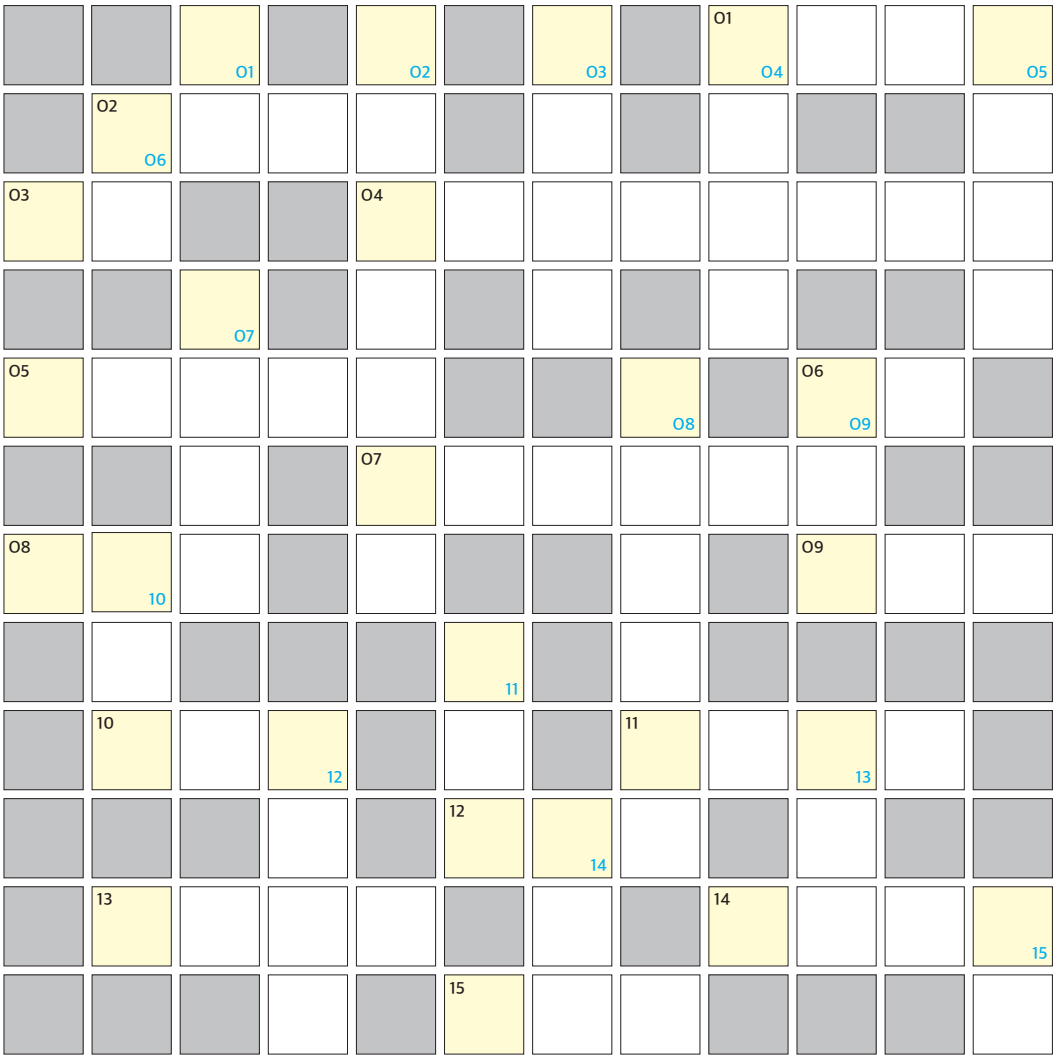
언젠가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인 서천석님의 SNS에서 보고 옮겨 적은 말이다. 누군가를 궁금해한다는 건, 마음을 행동으로 옮기는 그 중간에 있을 것이다. 나는 당신의 안부가 궁금하다. 궁금해 하는 데 그치지 않고, 실제로 말을 걸어 묻는다. 그만큼을 건너가기도 사실은 어렵다. 마음은 있지만 표현하지 못하고, 잘해주지 못하고, 만나지 못하는 그런 게 우리에겐 더 흔한 일이기 때문이다. 바쁘니 누구나 그럴 수 있다지만, 다 같이 바쁘기 때문에 그런 마음이 더 귀해지는 것인지도.

그러니까 이런 얘길 하고 있는 게 얼마나 소용이 없느냐면, 이런 글 쓸 시간에 마음 있는 사람에게 연락이라도 한 번 더 하는 게 낫기 때문이다. 엄마한테 전화하러 가야지…. 마음만 있어서는 아무래도, 되지가 않으니까요.

EDITOR 김신지 summer@univ.me
ILLUSTRATOR 키미앤일이

기명군의 낱말 퍼즐

모든 것이 간단해야 하지만, 너무 간단해선 안 돼.



WEEKLY GIFT

퍼즐을 완성해 본인 계정 인스타그램에 태그와 함께 올려주세요!

#대학내일
#그런이중잣대는사양합니다

세 분을 선정해 불편한 성 고정관념에 관한 50가지 이야기 『그런 이중잣대는 사양합니다』를 드립니다!

BOOK
『그런 이중잣대는 사양합니다』, 제시카 발렌티, 두시의나무

842호 해답

	일	하	는	여	자	들			웹	소	설
		멜			두		좋			피	
마	침	표		돌		매	니	파	퀴	아	오
틴		류		림		스			디		
개		기	시	노	부	스	케		치	도	곤
릭				래		타		홍			
스			사		위	트	앤	시	니	컬	
	진	딧	물				디			벤	츠
	입		인	피	니	티	워			져	
	장		터				홀		옥	스	팜
도	벽		넷	플	릭	스		구	수		
						팀			수	호	랑

가로 열쇠

01 일본 도쿄의 번화가 중 하나. 국회의사당, 총리 관저뿐 아니라 국빈용 숙소가 자리 잡고 있어 치안이 좋고 거리도 깔끔하다. 지명 때문에 '센소지'가 있는 아사쿠사와 헷갈릴 수 있지만 엄연히 다른 곳. 롯폰기와 가깝고 시부야, 도쿄타워, 긴자 등도 근방에 있어 일본여행 시 이곳에 숙소를 잡으면 편리하게 여러 곳을 둘러볼 수 있다. #붉은언덕

02 2014년 『나쁜 페미니스트』를 발표해 미국 사회에 페미니즘 열풍을 일으킨 소설가 겸 문화비평가. 최근 국내 출간된 『헝거』는 열두 살 때 받았던 상처와 방황, 피해자로서 자기혐오에 빠졌던 시간들을 고백한 자전적 에세이다. "나는 페미니스트가 되지 않기보다는, 나쁜 페미니스트를 택하겠습니다."

03 얇고 긴 두 개의 판 위에 부츠를 붙여 신고 눈 위를 미끄러져 내려오는 겨울 스포츠. '동계올림픽의 꽃'이라 불리지만 국내에선 메달권과 멀어서인지 큰 인기를 누리지 못하고 있다. 다만 레저로서 이 스포츠를 즐기는 인구는 꾸준히 늘어나는 추세. #무주덕유산 #평창용평

04 제90회 아카데미 시상식 여우주연상 수상자. 1997년 <파고>로 여우주연상을 받은 이후 <쓰리 빌보드>로 21년 만에 또 하나의 트로피를 거머쥐었다. 그는 "이 시상식의 모든 여성들이 저와 함께 일어나주셨으면 좋겠다. 주변을 한번 둘러봐주시기 바란다. 우리 모두는 스토리가 있다. 서로를 포용할 필요가 있다"는 감동적인 수상 소감으로 화제를 낳았다.

05 송은이, 김신영, 신봉선, 안영미, 김영희로 결성된 프로젝트 걸그룹. 주장 김신영이 일본의 한 고등학교 동아리 퍼포먼스에서 모티브를 얻어 그룹까지 만들게 됐다. 놀라운 칼군무와 중독성으로 뮤직비디오 조회 수 400만을 돌파했다. #아리아나그란데처럼셀럽이되고싶어

06 소녀시대 멤버이자 효리네 민박 2대 알바생. 와플 기계, 보드게임, 미러볼 등 이것저것 많이 챙겨와 'OO에몽'이라는 별명도 얻었다.

07 작성·편집·저장·인쇄 등 문서 관련 작업이 가능한 소프트웨어. 한글과컴퓨터의 '아래아한글'과 마이크로소프트의 'MS Word'가 대표적이다. 소프트웨어 사용 능력을 활용해 자격증을 따기도 한다.

08 1)미키 OOO와 미니 OOO 2)키보드와 함께 대표적인 컴퓨터 주변기기 3)"샷다 OOO(입 닥쳐)!!"

09 '사람의 형상이나 탈'을 뜻하는 말. 보통 사람답지 못한 행동이나 말을 한 사람에게 "OOO을 쓰고 어떻게 그런 일을 할 수 있냐"는 뉘앙스로 질책할 때 쓰인다. #OOO을쓰다

10 1)딱 요맘때. 2)2월 22일 개봉한 배종옥·이원근·박원상 주연의 영화. 3)브로콜리너마저의 2집 수록곡. "난 마음이 작지만 그런 마음으로 그런 자리에서 항상 걸쳐 있을 뿐/ 이런 다음에도 또 다른 계절에도 이제는 내가 있을 곳을 찾을 때" #비염환자들은OOO가싫어요

11 2명 이상이 공동으로 죄를 저질렀을 경우 성립하는 범죄. 2009년 용산 참사 당시 생존한 철거민 다섯 명이 이 판결을 받았다. 최근 참사 이후를 담아낸 다큐멘터리 영화 <OOOO>이 개봉됐다. #두개의문 #이후 #6년만 #김일란 #이혁상

12 우편물을 배달하는 우체국 공무원. 다른 말로 '우체부'라고도 부른다. 몇 년 전부터 급속도로 늘어난 물량 때문에 노동 강도가 지나치게 높아, 증원이 필요하다는 비판이 꾸준히 나오고 있다. #포스트맨은벨을두번울린다

13 대학교마다 하나씩은 꼭 있는 건물. 다른 건물과 달리 강의실은 없고 매점, 우체국, 은행, 식당, 동아리방 등이 주를 이룬다. 보통 첫 글자와 마지막 글자를 따 두 글자로 줄여 부른다.

14 '낮에는 농사일을 하고, 밤에는 책을 읽는다'는 뜻으로, 그만큼 어려운 환경에서 공부하는 사람을 일컫는 말. 낮 O, 밭 갈 O, 밤 O, 읽을 O.

15 전라도와 경남 서부를 흐르는 강. 유홍준 작가는 『나의 문화유산답사기』에서 이 강을 따라 개설된 19번 국도를 가리켜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길'이라는 찬사를 보냈다. #재첩국

세로 열쇠

01 1)무슬림 남성에게 많이 붙이는 이름. 2)북한과 인접해 있는 러시아 연해주의 마을 이름. 3)"이제 더 이상 가르칠 게 없으니 OO하거라."

02 최근 국내 개봉한 판타지 로맨스 영화. 제90회 아카데미 시상식에서 작품상, 미술상, 음악상을 받았고 기예르모 델 토로 감독은 이 영화로 감독상을 받았다. 이동진 영화평론가는 높은 별점(★★★★☆)과 함께 "물의 로맨스와 물의 에로스. 어떤 형태도 될 수 있는 물처럼 신비롭고 아름다운."이라는 한줄평을 남겼다. #OOOOOOO사랑의모양

03 종로 5가에 위치한 대한민국 최초의 상설 시장이자 재래시장. 먹자골목에서는 육회, 빈대떡, 완자, 마약김밥, 잔치국수, 닭발 등을 파는데, 매일같이 북적거린다. 먹자골목 근처 구제 상가도 패션 좀 아는 힙스터들이 즐겨 찾는 명소.

04 1.43:1의 화면 비율과 고해상도가 특징인 극장용 영사 기술. 이 기술을 활용하려면 촬영할 때도 여기에 맞춰 찍어야 한다. <인터스텔라>, <그래비티>, <덩케르크> 등 화면 비율이 중요한 특정 영화들은 "OOOO로 안 보면 후회할걸?"이란 리뷰가 꼭 따라붙고, 한창 몰릴 때는 예매하기도 쉽지 않다. "Watch a movie or be part of one."

05 그리스·로마 신화에 등장하는 트로이의 공주로, 트로이의 멸망을 예언했다. 아폴론에게 예지 능력을 받았으나, 동시에 그 예언을 아무도 믿지 않게 하는 저주도 받았다. 어언 10여 년 전, <개그 콘서트>에서 개그맨 김현숙이 이 인물을 모티브로 한 캐릭터로 사랑받기도 했다. #이세상의날씬한것들은가라 #이제곧뚱뚱한자들의시대가오리니

06 1976년에 개봉한 실베스터 스탤론 주연의 스포츠 영화. 이듬해 아카데미 시상식에서 감독상, 작품상, 편집상을 받았을 정도로 흥행뿐 아니라 작품성도 높게 평가받았다. 주인공의 트레이닝 장면에 삽입된 노래 'Gonna fly now'는 이후 하도 많이 패러디되어 영화를 안 본 사람에게도 멜로디가 익숙하다.

07 맛이 매우 다양한 스페인의 막대 사탕 브랜드. 사탕이라고 하면 많은 사람들이 이 막대 사탕을 떠올릴 것이다. 그만큼 익숙하고 흔해서 화이트데이에 이거 하나 달랑 사서 줬다가는 욕먹기 딱 좋다.

08 대학로 부근에 위치한 공원. 조경수 격으로 심은 나무의 이름을 따 공원 이름도 지어졌다. 놀이터, 야외무대, 연못, 분수 공원, 조각품 등이 배치되어 있고 근처에는 소극장이 몰려 있다.

09 뉴데일리에 웹툰 <조이라이드>를 연재하고 있는 만화가. 이전부터 세월호 유족, 위안부 피해자 등 사회적 약자를 조롱하는 만화로 비판을 받아왔는데, 최근 조두순 사건 피해자를 조롱하는 내용의 만화를 그려 그를 처벌해 달라는 국민청원 참여자가 20만 명을 돌파하기도 했다. #[가로9]을쓰고어떻게그럴수있지?

10 지난해 OCN 드라마 <구해줘>의 석동철 역으로 이름을 알린 후 <매드독>, <위대한 유혹자> 등에 출연하며 커리어를 쌓고 있는 남자 배우. 지난해 <KBS 연기대상>에서는 남자 신인상을 받았다.

11 크레인 끝에 설치해 리모컨으로 조종하는 카메라. 상하좌우 자유롭게 이동할 수 있어 동적인 숏을 촬영하기에 적합하다.

12 News conference. 언론을 초청하여 입장을 밝히는 행사. 출마 선언 등 예외가 있지만, 요즘은 좋은 일로 OOOO 하는 경우가 거의 없는 것 같다. #굳은표정 #터지는플래시

13 <친절한 금자씨>, <싸이보그지만 괜찮아>, <박쥐>, <아가씨> 등 박찬욱 감독과 다수 작품을 작업한 시나리오 작가. 첫 드라마 집필작인 <마더>가 현재 tvN에서 방영 중이다.

14 MBC 아나운서 출신 정치인(?). 최근 자유한국당 입당 환영식에서 "조명 창고로 대기 발령받는 등 억울한 일을 당했다"고 발언했다.

15 한국, 스웨덴, 멕시코와 함께 2018 러시아 월드컵 F조에 배정된 국가. #살살합시다

EDITOR 기명균 kikiki@univ.me

Weekly Hot & New

이주의 주목할 만한 소식들

'라이프플러스 벚꽃피크닉페스티벌' 개최

봄맞이 나들이를 떠나볼까. 날 좋은 4월 7일, 63빌딩 앞 한강공원에서 '라이프플러스 벚꽃피크닉페스티벌 2018'이 열린다. 페스티벌은 블라썸 콘서트, 블라썸 토크, 블라썸 마켓, 블라썸 쇼 등으로 구성된다. 이적, 아이콘, 소유 등 콘서트 라인업도 화려하다. 요즘 핫한 언니들인 송은이와 김숙은 토크 무대를 꾸밀 예정. 라이프플러스 홈페이지(https://www.lifeplus.co.kr/)에서 4월 2일까지 티켓 이벤트를 진행 중이다.

파파레서피 '깔라만시 브라이트닝 라인' 출시

칙칙했던 피부는 이제 안녕! '신의 선물'이라 불리는 깔라만시를 원료로 한 파파레서피 '깔라만시 브라이트닝 라인'이 새로 나왔다. 레몬의 30배가 넘는 비타민 함유량을 자랑하는 깔라만시가 피부를 생기발랄하게 가꿔준다. 스킨, 에멀젼, 크림, 파우더 워시 총 4종의 아이템으로 깔라만시의 효능을 느껴볼 수 있다. 파파레서피 홈페이지(http://paparecipe.com/)를 통해 구매 가능.

팔도 '봄꽃 비빔면' 판매

비빔면에게도 봄이 왔다. 팔도가 14일부터 봄맞이 한정판으로 '봄꽃 비빔면'을 판매한다. 꽃 모양 어묵이 담긴 수프를 추가 제작해 별첨한 것이 이 제품의 특징. 비빔면의 새콤달콤함에 쫀득한 어묵의 식감이 더해져 먹는 재미가 두 배다. 꽃 모양이 콕콕 박힌 패키지도 눈에 띈다. 다가오는 주말, 오른손으로 비비고 왼손으로 비벼 먹어보자.

루나 '프로 2X 커버 쿠션' 출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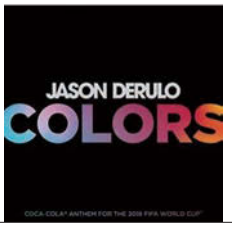
꿩 먹고 알 먹고, 도랑 치고 가재 잡는 일석이조 뷰티템이 출시됐다. 커버 쿠션 파운데이션과 밤 타입 파운데이션이 동시에 담긴 루나 '프로 2X 커버 쿠션'이 새로 나온 것. 커버 쿠션 파운데이션으로 감쪽같은 결점 커버는 물론, 밤 타입 파운데이션으로 지속력까지 잡았다. 아침에 화장한 그대로 오랜 시간 유지돼 수정 메이크업도 저리 가라다.

휠라 '츄파춥스 컬렉션' 컬래버레이션

이번 '휠라보레이션'의 주인공은 츄파춥스다. 보기만 해도 달달해지는 츄파춥스의 아이코닉 로고가 휠라의 의류, 신발, 모자, 액세서리 등을 만나 '휠라 X 츄파춥스 컬래버 컬렉션'으로 다시 태어났다. 이번 협업 제품은 한국·중국·홍콩 3개국에서 동시 출시된다고. 츄파춥스 특유의 통통 튀는 색감과 휠라의 스트리트 무드가 만나 독특한 느낌을 자아낸다.

무학 한정판 '좋은데이 1929'

소주파들 모여라. '좋은데이 1929'의 한정판 '러브 에디션'이 출시됐다. 부드러운 소주의 맛을 살려 가볍게 즐기기 좋은 것이 특징. 경남 지역에서만 만날 수 있었던 '좋은데이'는 지난 2월부터 서울로 판매 지역을 확대했다. 귀여운 패키지가 인상적인 '러브 에디션'은 20만 병 한정 판매되니 소주파들은 서둘러 한잔하러 가볼 것.



제이슨 데룰로 싱글 'Colors' 발매

클럽에서 제이슨 데룰로의 곡에 맞춰 리듬 좀 타봤다 하는 사람들은 주목! '흥신흥왕' 제이슨 데룰로가 새로운 싱글을 발표했다. 절로 어깨춤이 춰지는 라틴풍 멜로디가 인상적인 노래 'Colors'다. 업비트와 캐치한 사운드로 무장한 이 곡은 2018 FIFA 월드컵을 앞두고 코카콜라 사의 월드컵 공식 주제곡으로 선정됐다.

이스트팩 '이스트팩X앤디 워홀 컬렉션' 출시

팝아트의 거장 앤디 워홀과 이스트팩이 손을 잡았다. 이스트팩의 오리지널 디자인 '패디드팩', '스프린저', '트랜버즈', '트랜버즈 M'에 앤디 워홀의 대표작들을 녹여낸 '이스트팩X앤디 워홀 컬렉션'이 첫선을 보였다. 앤디 워홀도 생전에 이스트팩을 즐겨 맸다는 후문이 이번 컬래버레이션에 대한 기대감을 높인다.

그래 바로 너!

:

봄, 봄, 봄,
봄이 왔네요~

01

세븐일레븐 17초 영화제 (~3.28)

백주부표, 헤레사표 도시락보다 헤리표 도시락이 끌리는 친구들! 세븐일레븐 17초 영화제에 도전해봐. 세븐일레븐의 도시락이나 커피 '세븐카페'를 홍보하는 영상을 만들어서 올리면 돼. 장르는 네 맘대로! 폰카 촬영 대환영! 대상에게는 상금 100만원과 세븐일레븐 도시락 1년 이용권을 준대. 1년 치 도시락을 겟 하고 싶다면 지금 당장 휴대폰을 꺼내봐!

주최 세븐일레븐
기간 2018년 3월 28일(수) 마감
태그 #세븐일레븐 #편의점17초영화제

02

도미노피자 롤라운 영상·사진 콘테스트 (~4.3)

박보검~나 맛있는 피자가 먹고 싶은 친구들! 도미노피자의 롤라운 영상·사진 콘테스트에 도전해봐. 신제품 먹방부터 CF 패러디까지, 도미노피자를 소재로 한 콘텐츠는 무엇이든 좋아. 각 1등 상품으로 영상 분야는 도미노피자 상품권 30매, 사진 분야는 5매를 준대. 여러 작품을 응모해도 된다고 하니 꼭 도전해봐!

주최 도미노피자
기간 2018년 4월 3일(화) 마감
태그 #롤라운_콘테스트로 #롤피자_먹자

기온이 영상이라 추천하는 영상 **공모전 BEST 4**

03

제1회 Be Creator by SK브로드밴드 (~4.30)

영상·광고 크리에이터를 꿈꾸는 친구들! SK브로드밴드에서 개최하는 제1회 Be Creator에 도전해봐. 영상 부문은 단편영화나 애니메이션, 웹드라마의 시놉시스와 시나리오를 제출하면 되고, 광고 부문은 영상 스토리보드나 인쇄 시안을 제출하면 돼. 총 상금 1억 2,000만원을 포함해 입사 혜택 등 다양한 혜택이 기다리고 있으니 꼭 도전해봐!

주최 SK브로드밴드
기간 2018년 4월 30일(월) 마감
태그 #역대급 #크리에이티브_챌린지

04

한국선거방송 2018 깨알영상 공모전 (~5.25)

내가 만든 영상을 TV에서 보고 싶은 친구들! 한국선거방송에서 2018 깨알영상 공모전을 진행 중이야. 내가 경험한 선거 등 선거를 주제로 영상을 만들거나 여행, 취미, 지식 등 일상 속 다양한 내용을 주제로 영상을 만들어서 제출하면 돼. 대상에게는 100만원의 상금을 주고, 마감일까지 매월 우수작을 선정하여 TV로 방송한다고 하니 꼭 도전해봐!

주최 한국선거방송
기간 2018년 5월 25일(금) 마감
태그 #6월13일은 #전국동시지방선거

EDITOR 캐미언니 outcampus01@naver.com
ILLUSTRATOR 김유진

아시아나가
네 꿈의 날개가 되어줄게

2018 아시아나항공 **드림윙즈 8기** 모집

- **모집 기간** 2018년 3월 12일(월) ~ 2018년 4월 13일(금)
- **응모 방법** 드림윙즈 공식 홈페이지 (dreamwings.flyasiana.com)에서 참가신청 및 관련 서류 접수
- **특전 및 혜택** 여름방학 꿈여행 항공권과 지원금 제공 (제세공과금 본인부담)

응모와 관련된 자세한 사항은 드림윙즈 공식 홈페이지 (dreamwings.flyasiana.com)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ASIANA AIRLINES
A STAR ALLIANCE MEMBER

30 YEARS

HANSAE YES24 FOUNDATION

Love Asia Hansae Yes24

9기

한세예스24문화재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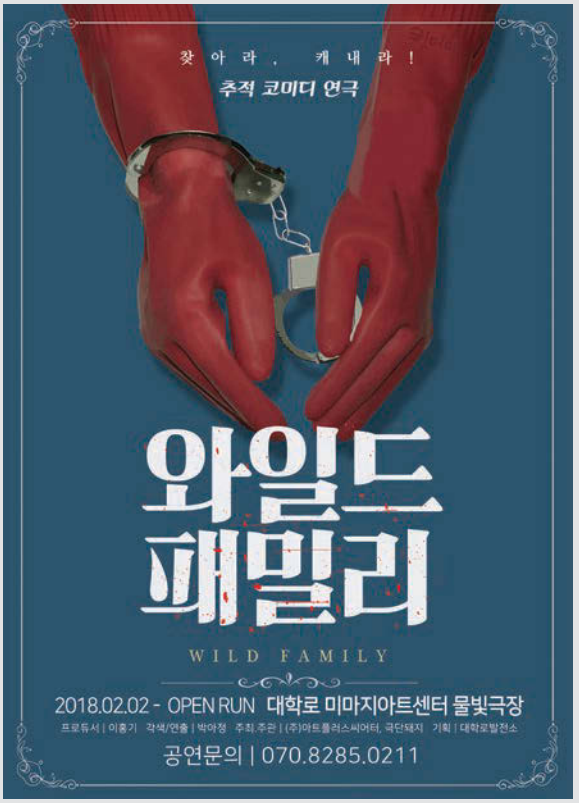
대학생 해외봉사단 모집

·**참가대상** : 국내 대학 재학생이면 누구나 ·**모집인원** : 20명 내외 ·**파견국가** : 베트남(Vietnam)
·**활동계획** : 문화봉사 및 베트남 대학생들과 교류 활동 ·**지원규모** : 항공료, 현지 체류비 전액 지원
·**신청기간** : 2018년 3월 19일 ~ 4월 13일 자정까지 ·**활동기간** : 2018년 7월 말 (11일간)
·**신청방법** : https://goo.gl/forms/91MQgq6dnUWJpkDG3 링크에서 지원서 작성
·**선정방법** : 두 차례 면접 ·**문의사항** : http://cafe.naver.com/hansaelove

후원 HANSAE YES24 HOLDINGS HANSAE fashion worldwide YES24.COM

#대학생만을 #위한 #금주의 #꿀정보

EDITOR 김민기 minki12@univ.me



극단 돼지

연극 <와일드 패밀리>

ticket.interpark.com

연극 <와일드 패밀리>가 대학로 미마지아트센터 물빛극장에서 오픈런 중이야. 거칠지만 끈끈한 애정이 넘치는 가족이 운영하는 칼국숫집에서 일어나는 이야기로, 기가 막힌 반전과 코믹한 생활 연기가 펼쳐진대. 스릴과 웃음을 버무린 연극 <와일드 패밀리>가 보고 싶다면 인터파크 티켓 홈페이지에 접속해봐.

일정
오픈런

장소
대학로 미마지아트센터 물빛극장

기아자동차

제1회 기아자동차 세일즈 공모전 K-서포터즈

bit.ly/K-서포터즈지원서

기아자동차에서 세일즈 공모전 K-서포터즈를 개최한대. 4가지 주제 중 하나를 택해 기아자동차 판매 증대 아이디어를 제안하면 돼. 대상에게 300만원의 장학금을 주고, 수상 팀에게 현직자 멘토링도 제공한다고 하니 바로 지원해봐!

응모 기간 2018년 4월 3일(화) 마감
응모 자격 전국 대학/대학원생
*개인 혹은 팀 단위 가능(최대 4인)
시상 내역 대상(1팀) 300만원, 최우수상(2팀) 100만원, 우수상(4팀) 50만원, 수상 팀 대상 기아자동차 현업선배들의 멘토링 제공

극단 기적

연극 <오백에 삼십>

ticket.interpark.com

연극 <오백에 삼십>이 대학로 미마지아트센터 물빛극장에서 오픈런 중이야. 보증금 500만원에 월세 30만원인 '돼지빌라'에서 살아가는 청춘들의 이야기로, 돈도 없고 빽도 없지만 열심히 살아가는 청춘의 자화상을 그리고 있어. 장르는 생계형 코믹 서스펜스. 자세한 내용은 홈페이지 참고.

일정 오픈런
장소 대학로 미마지아트센터 물빛극장

HR

더 많은 정보를 원한다면: 아웃캠퍼스 cafe.naver.com/outcampus

기업명	직무	홈페이지	지원 마감	기타
LG전자	R&D, HR, IT, Sales 등	apply.lg.com	~ 3.26	LG전자 2018년 상반기 신입사원 공채
LF그룹	기획MD/영업, 온라인MD, 마케팅, 재무/경영기획, 생산관리 등	recruit.lfcorp.com	~ 3.27	LF그룹 2018년 상반기 신입사원 공개채용

공모전

주최	공모전명	분야	지원 마감	상금
전주국제영화제 조직위원회	전주국제영화제 포스터 공모전	디자인	~ 3.23	대상(1점) 150만원, 최우수상(1점) 100만원, 우수상(1점) 50만원, 장려상(2점) 25만원
교보생명	광화문글판 대학생 에세이 공모전	에세이	~ 3.29	대상(1편) 300만원, 최우수상(1편) 100만원, 우수상(2편) 50만원, 장려상(5편) 30만원
특허청, 한국과학기술단체총연합회	대학창의 발명대회	아이디어	~ 4.16	대통령상(1팀) 300만원, 국무총리상(1팀) 200만원,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상(2팀) 150만원, 산업통상자원부장관상(2팀) 150만원 등
기아자동차	제1회 기아자동차 세일즈 공모전 K-서포터즈	아이디어	~ 4.3	대상(1팀) 300만원, 최우수상(2팀) 100만원, 우수상(4팀) 50만원, 수상 팀 대상 기아자동차 현업 선배들의 멘토링 제공
EXCELSIOR	EXCELSIOR 비쥬얼&아트 공모전	디자인	~ 4.8	최우수상(2인) 200만원, 우수상(2인) 100만원, 입선(20인) EXCELSIOR 온라인 상품권 10만원, 참가자 전원 EXCELSIOR 온라인 50% 쿠폰 증정
한화케미칼	제1회 한화케미칼 대학생 광고 공모전	광고	~ 4.8	대상(1명) 500만원, 최우수상(2명) 300만원, 우수상(5명) 100만원
SK브로드밴드	제1회 Be Creator by SK브로드밴드	영상, 광고	~ 4.30	영화/광고 각 대상(1팀) 2,000만원/1,000만원, 최우수상(1팀) 1,000만원/500만원, 우수상(1팀) 500만원/200만원, SK브로드밴드 입사 혜택 등

대외활동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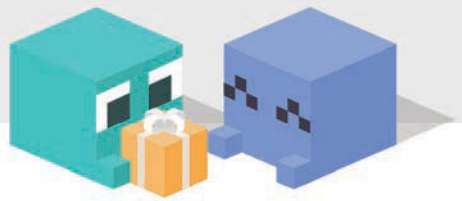
주최	대외활동명	활동 기간	지원 마감	활동 혜택
고용노동부, 한국산업인력공단	2018 고용노동부 J Kreator 2기	10개월	~ 3.22	팀별 최대 600만원 활동 지원금 지급, 300만원 상당의 콘텐츠 제작 및 뉴미디어 관련 교육 제공, 우수 활동자 포상, 수료증 발급 등
서울특별시 문화본부	2018 한양도성 홍보순성관	9개월	~ 3.23	기사 원고료 지급, 동영상 홍보 제작비 지급, 자원봉사 시간 인정, 활동 실비 및 활동 용품 지급 등
울산광역시	제6기 울산관광 스토리텔링 블로거	7개월	~ 3.25	소셜미디어 교육, 매월 활동비 지급, 우수 블로거 시상
해양수산부	해양수산부 대학생 기자단 해리포터 6기	9개월	~ 3.25	소정의 원고료 및 활동비 지급, 우수기자 장관상 수여 등
뉴트리라이트	뉴트리라이트 대학생 기자단 8기	5개월	~ 3.25	뉴트리라이트 제품 지원, 팀별 활동비 50만원, 우수 기자 포상, 기자단 수료증 수여 등
아시아나항공	2018 아시아나항공 드림윙즈 8기	3개월	~ 4.13	국내 꿈 여행 (1박2일) 지원금 제공, 해외 꿈 여행 (6박 7일) 항공권 및 체류비 지원, 대표이사 명의 수료증 발급 등

강연 / 이벤트

주최	행사명	홈페이지	일정	기타
DAVIDKOREA	그림의 마술사 : 에셔	museum.yonsei.ac.kr	~ 4.11	연세대학교 박물관
극단 돼지	연극 <와일드 패밀리>	www.ticket.interpark.com	~ 오픈런	대학로 미마지아트센터 물빛극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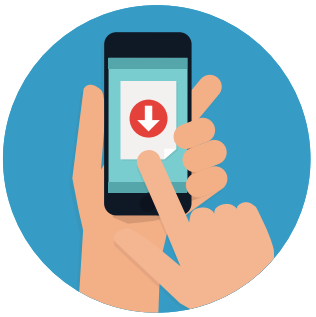
친구야, 내가 데이터 쏠게!

Y데이터박스로 데이터를 주고받는 신박한 새내기가 되어보자.



#1 실례합니다만 데이터 좀

아낀다고 아꼈는데도 월말이면 늘 부족한 데이터. 어서 1일이 되기를 기다리며 와이파이를 찾아 카페를 어슬렁거리는 와이파이 헌터로 변하진 않는지? 학기가 시작되어 친구들과 연락할 일도 많고, 슬슬 과제도 생겨서 데이터 사용량이 늘어날 것 같아 초조하진 않은지? 이럴 때 데이터무제한요금제를 사용하는 친구가 내게 데이터를 나눠준다면 참 좋을 텐데. 이런 고민을 덜어줄 신박한 것이 나타났다! 바로 'Y데이터박스'이다. 나에게는 없고 너에게는 있는 데이터를 재미있게 공유하는 KT의 새로운 앱(App) 서비스다. 그럼 어떻게 사용하는지 차근차근 알아볼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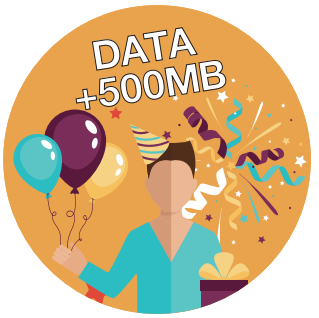


#2 이렇게 예쁜 앱 넣어둬 넣어둬

Y데이터박스 앱을 다운받은 사람이라면 누구나 LTE 데이터를 주고 받을 수 있다. 전용 앱만 다운받으면, 복잡한 경로로 찾아 들어가지 않아도 된다. 인증 번호를 입력하는 번거로움과 주고받는 횟수 제한 없이 한 달에 여러 번 데이터를 나눌 수 있다. 게다가 보기 좋은 앱이 쓰기도 좋다고, 픽셀화된 박스 캐릭터가 앱 곳곳에서 발견되는데, 볼수록 눌러보고 싶은 마음이 강렬해진다. 싱그러운 민트색 Y 아이콘도 당신의 바탕화면을 해치지 않고 예쁘게 지켜줄 것이다.

#3 내가 쏜다 데이턱

Y데이터박스로 데이터를 나누는 방식은 좀 특별하다. 받을 사람과 보낼 데이터 용량을 지정해 1:1 선물하기도 할 수 있지만, 1:다수로 데이터 나눔도 가능하다. 동영상 링크를 친구에게 보내듯 나눔할 데이터의 링크를 만들어 카카오톡이나 페이스북 등에 올리면, 발견한 사람이 링크를 눌러 데이터를 내려받는 것이다. 한 번에 최대 1GB까지 데이터를 올려서 최대 10명에게 나눠줄 수 있고, 1인당 100MB씩 나눠서 선착순으로 다운로드할 수 있다. 이것이 바로 '데이턱' 기능! 데이터로 한턱낸다는 의미다. 자, 이제 친구들에게 이렇게 말하자. "내가 데이턱 낼게! 여기 들어와서 받아."



#4 슬기로운 데이터생활

Y데이터박스 출시를 기념해 지금 가입하면 데이터 500MB를 선물로 주는 이벤트가 진행 중이다. 또, '이벤트박스' 기능을 통해 언제 어떤 선물이 찾아올지 모르니 매일 앱을 체크할 것. '데이턱' 기능을 활용해 데이터도 나누고 우정도 나누자. 자료 찾느라 데이터 소모가 많은 조원들에게 데이터를 쏘면서 열심히 하자고 격려해도 좋겠다. 선물 받은 데이터로 살랑살랑 봄 BGM도 듣고, 두근두근 로맨스 영화도 즐기기를. 선배에게 학교생활 꿀팁을 묻거나 오티 때 눈여겨본 친구와 톡하며 썸 타도 좋다. 당신의 유쾌한 새 학기를 응원한다!

우리가 만들었어!

케미좋조 (조장 송해섭, 손현정, 이세림, 이채현, 허창조)

소개를 부탁해요.

'케이티가 미치도록 좋은 조'이자 '케미가 좋은 조'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성균관대학교 마케팅학회 '마술피리'에서 같이 활동하다가 2017년 상반기에 '고감도'에 참여했습니다. '고감도'는 고객 감동에 도달한다는 뜻을 가진 KT의 산학협력 프로그램입니다. 각 대학 마케팅학회가 4주간 아이디어를 제안하고 KT 실무진의 체계적이고 정성 가득한 피드백을 받은 뒤, 발전된 아이디어를 발표하는 본선을 거쳐 좋은 아이디어는 실제 상품으로 출시되고 있어요. 저희 아이디어는 'Y데이터박스'라는 이름으로 출시됐습니다.

Y데이터박스는 어떤 과정을 거쳐 완성됐나요?

브레인스토밍 과정에서 '데이터로 한턱내다'라는 의미의 '데이턱'이라는 단어를 찾았고, 그에 맞춰서 데이터를 재미있게 공유하는 방법을 생각했어요. 재미에 집중하다 보니 KT의 캐릭터를 키우는 게임이 되어버릴 뻔했지만, 실무진의 피드백을 받고 다시 방향을 잡았죠. 중국의 카카오톡이라 불리는 '웨이신'에 '홍바오'라는 빨간 봉투를 보내면 랜덤으로 집는 사람이 돈을 받는 기능이 있어요. 이를 벤치마킹해서, 데이터를 보내면 선착순으로 그것을 내려받는 '데이턱'의 내용을 구체화했어요.

여러분의 아이디어가 실제 상품이 되니 어떤 기분이 들어요?

부모님과 친구들에게 자랑할 거리가 생겨서 기뻐요! 면접 준비하느라 고되고 힘들었던 마음도 치유되고 자신감도 생겼어요. 실제로 'Y데이터박스'를 사용하는 친구를 보면 뿌듯하고, 우리가 만든 거라고 자랑하고 싶을 것 같아요. 데이터가 부족한 월말에 재미있게 데이터를 주고받으면 좋겠습니다. 자료를 주고받느라 데이터 소모가 많은 팀플 단톡방에 데이터를 올려두고, 그것으로 자료를 주고받으세요. 싸우고 화해할 때도 사과 대신 데이터를 주고받으세요, 하하. '데이턱'이라는 단어가 2018년 신조어로 활발히 사용되기를!

"데이터를 주고 받는 새로운 방법"

KT Y데이터박스

당신의 남는 데이터로 한턱 쏘세요! 데이터를 재미있게 주고받는 KT의 새로운 방법,
Y데이터박스가 3월 13일 출시됐습니다. Y데이터박스 앱에서 데이터 선물하기,
데이턱, 가입축하 데이터 500MB, 데이터 관리, 이벤트&무료혜택을 이용할 수 있습니다.
앱 다운로드 및 가입 무료. KT LTE 스마트폰 요금제 고객 이용가능(선불, 법인 제외).

구글 플레이스토어 앱스토어 원스토어

가난하다고 해서 데이트를 못하겠는가 커플 필독! 데이트 비용을 아끼는 5가지 방법

돈은 없어도 앱은 깔 수 있겠지? 지금부터 앱 하나로 데이트 끝내는 방법을 알려줄게. (feat. 데이트 9단 커플)

EDITOR 신청 **ILLUST** 조현경 **MODEL** 권지영 정자헌

리브메이트(Liiv Mate) 앱 다운로드는 필수

리브메이트는 커플이라면 꼭 같이 사용해야 할 필수 앱이야(아, 물론 솔로는 쓰지 말란 법은 없어). 각종 미션을 수행하며 포인트를 모아 일정액 이상이 되면 현금처럼 사용할 수 있기 때문이지. 다른 앱들에 비해 포인트를 모을 수 있는 이벤트가 다양해서 금방 포인트를 모을 수 있어. 현재 모든 신규 가입 회원에게 1,000p를 지급하고, 추첨을 통해 맥북프로를 증정하는 이벤트를 진행 중이니 둘이 손잡고 다운로드 롸잇 나우!

START

Liiv Mate

05

데이트 비용은 커플 통장으로

데이트 비용 때문에 쪼들리는 느낌이 든다면 커플 통장을 한번 만들어보는 건 어떨까? 매달 일정 금액을 정해 각각 입금하고, 모든 데이트 비용은 통장 내 금액에서 지출하는 거지. 리브메이트 앱의 커플 통장 기능을 이용하면 사용 내역을 서로 공유할 수 있어서 불필요한 과소비도 막고, 투명한(?) 관리도 가능해. 그날 그날 어떤 일이 있었는지 추억의 메모도 남기면서 기념일 관리도 할 수 있지. 여행을 계획할 때도 커플 통장을 활용하면 목적의식이 생겨 목돈도 쉽게 모이더라고. 어때? 말 나온 김에 오늘부터 1일?

Welcome Liiv Mate

리브메이트 가입하고
맥북프로 받자!

| 행사기간 2018.3.1(목) ~ 3.31(토)

| 행사대상 Liiv Mate 최초 가입회원

| 참여방법

1) Liiv Mate 앱 다운로드

2) 회원가입 시 추천인정보 입력단계에서 프로모션코드에 '리브메이트' 입력

| 당첨안내

- 2018.4.27(금) 이내 당첨자 개별 안내 예정

| 행사내용

- Liiv Mate 신규 회원가입 시 포인트리 1,000P 즉시 지급
- 신규가입 회원 중 3명을 추첨해 애플 MacBook Pro(13형 512GB) 제공

단, Liiv Mate 서비스 이용실적에 따라 추가 추첨기회 부여

01

길바닥에서 포인트 줍줍하기

리브메이트에는 이동하는 길에 포인트 버는 방법이 두 가지 들어 있어. 하나는 퀴즈를 푸는 거야. 독자가 직접 출제하는 그림 넌센스 퀴즈를 풀면 문제의 난이도에 따라 매일 10p~15p를 받을 수 있고, 주 단위로는 시사/경제 퀴즈를 풀어 추가로 포인트를 쌓을 수 있어. 다른 하나는 증강현실 기반의 게임, 캣크러시를 하는 거야. 주변의 스타샵 가맹점을 찾아 간단한 퍼즐 게임을 완성하면 한번 성공하는 데 50p, 한 달 동안 최대 5,000P를 적립해주지. 요건 특히 이동하는 버스 안에서 하면 핵이득이야. 어때? 데이트 가는 길이 심심하지 않겠지?

02

오늘 점심은 포인트가 쏴!

열심히 모은 포인트, 어디에 쓰냐고? 밥 먹는데 써야지. 세븐스프링스, 서가앤쿡, 깐부치킨, 불고기 브라더스, 토다이, 캘리포니아 피자 치킨 등의 가맹점에서는 바코드만으로 포인트를 사용해 결제할 수 있어. 포인트가 모자란다고? KB국민체크카드로 포인트를 충전해 사용할 수 있으니 걱정 노노. 레스토랑뿐 아니라 편의점, 카페, 뷰티매장, 서점 등에서도 바코드 결제가 가능하다는 건 안 비밀이야. 누가 낼지 눈치싸움은 이제 그만! 밥은 포인트로 먹자고.

03

아메리카노는 100원에

밥 먹었으면 커피도 한잔 해야지. 아, 그런데 우리는 디저트는 100원으로 해결해. 무슨 말이냐고? 리브메이트에서는 매일 랜덤한 시각에 100원 핫딜쿠폰이 뜨거든. 핫딜쿠폰은 투썸플레이스 아메리카노, 소프트 아이스크림(컵) 등을 100p에 살 수 있는 쿠폰이야. 선착순이라 뜨는 즉시 순삭되니까 항상 긴장을 늦추지 말라고. 쿠폰 갯하는 사람 금손 인정!

04

영화 볼 때는 포인트 추가 적립!

앱과 더불어 리브메이트 체크카드를 함께 사용하면 포인트를 모으는 속도가 달라져. 카드 사용실적이 포인트로 고스란히 쌓이기 때문이지. 영화를 좋아하는 우리 커플이 특히 애용하는 건 영화관 추가 적립! 영화 볼 때 리브메이트 체크카드로 결제하면 포인트가 1% 추가 적립돼서 돈 버는 기분이랄까. 물론 영화관 말고도 대학생이라면 누구나 자주 이용할 카페, 대중교통, 소셜 커머스, 편의점에서도 추가 적립이 되니까 솔로님들에게도 강추해.

서비스 항목	서비스 이용	추가 추첨기회
포인트리 사용	Liiv Mate에서 포인트리 보내기/충전/ATM출금/교환	1회
바코드 결제	바코드결제, OK캐쉬백결제	1회
캣크러시	캣크러시에서 포인트리 적립	1회
쿠폰구매	Mate쿠폰, 제휴쿠폰	1회
퀴즈참여	오늘의 퀴즈, 시사경제퀴즈	1회
소비매니저	소비내역 등록, 예산등록	1회

유의사항

- 동일 서비스항목 내 서비스 이용 건은 1회만 인정
  예) 보내기 1회+ATM출금 1회 → 추가 추첨기회 1회 부여
- 해당경품 단종 또는 품절 시 동급 이상의 상품으로 대체 가능
- 제세공과금은 당사 부담

※ 본 행사는 Liiv Mate의 영업정책 및 제휴업체 사정으로 변경 또는 중단될 수 있습니다.
※ 문의 : Liiv Mate 고객센터(1644-9311)

Liiv Mate 바로가기

SK VIKING CHALLENGE

2018 바이킹의 후예를 찾습니다!

남들이 뭐라 건 소신을 가지고 꾸준히 한 우물만 파왔다면, 끈질긴 집념으로 다양한 문제에 맞서 결국 나만의 해답을 찾아낼 자신이 있다면 지금 바로 도전하자! 2018 SK 바이킹 챌린지가 바로 지금 시작된다.

EDITOR 김민정 dodohanlife@univ.me

최기준 선임
SK주식회사 C&C

나는 바이킹의 후예다!

근성 있는 아이 어렸을 땐 좀 끈질긴 면이 있었어요. 뭐든 한번 시작하면 끝을 봐야만 직성이 풀렸죠. 그냥 재미로 하는 블록 쌓기도 제가 처음에 생각한 형태대로 끝까지 완성시켜야만 놀이를 끝낼 수 있었어요. 학교 다닐 땐 수학 문제 푸는 걸 좋아했는데 지금 생각해보면 어떤 문제에 대한 답을 찾아가는 과정 자체를 즐겼다는 생각도 들어요. 제 앞에 놓인 문제를 해결하고자 하는 끈질긴 집념 같은 게 있는 아이였던 것 같아요.

바이킹의 후예가 되기 위한 도전 SK 바이킹 챌린지는 전형 자체가 독특해서 호기심이 생겼어요. 한번 도전해봐도 좋겠다는 생각도 들었고요. 취업을 떠나서 SK 바이킹 챌린지 전체 과정을 경험해보는 것만으로도 얻는 게 있겠다 싶었거든요. 다른 한편으로 취업 스펙이나 자기소개서에 연연하지 않는다는 이 전형의 특징이 제게 장점으로 작용하겠다는 생각도 들었어요. 대학시절부터 다방면에 관심이나 소질이 있다기보다는 한가지 일을 꾸준하게 파고드는 걸 좋아했던 편이라 다양한 대외활동보다는 전공 공부를 하는 데 충실했거든요.

나의 성공 키워드는 한 우물만 파기 도전 결과 제 예상이 맞았어요. 저는 대학에서 통계학을 전공했고 대학원 진학 후에도 꾸준히 빅데이터 분석에 대해 공부해 왔는데요. 챌린지에서도 소위 '덕후' 기질을 가지고 꾸준히 한 분야만 '덕질' 해온 끈기와 집념을 강조했죠. 더불어 전공 수업시간은 물론 학교 밖에서 진행한 전공 분야 관련 프로젝트를 포트폴리오 형식으로 만들어 발표했고요. 그중에서도 SK주식회사 C&C의 경우, 당시의 행보를 토대로 볼 때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 빅데이터, IOT, AI 같은 신기술에 관심이 많다는 생각이 들어 기술 트렌드와 제가 연구해온 포트폴리오 내용 중 연계 가능한 접점을 찾고 입사 시 어떤 방식의 연구를 해나갈 수 있는지 어필한 부분이 도움이 됐다고 생각합니다. 챌린지 과정에서 제가 좋아하는 일이나 분야를 남들 앞에서 설명하는 걸 좋아한다는 사실도 깨달을 수 있었고요.

꾸준함과 집념으로 이룬 쾌거 바이킹 챌린지에 도전하면서 느낀 건 '좋아하는 일을 꾸준히 한다는 게 참 중요한 거구나' 하는 사실이었어요. 사실 어린 시절부터 제가 좋아해온 수학이나 통계는 그간 특별히 전망 있는 분야로 떠오른 적이 없었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꾸준히 전공 공부를 지속해왔어요. 누가 뭐래도 그건 제가 좋아하는 일이었으니까요. 그런 뚝심이 시대를 잘 만난 덕에 빛을 발하는 것 같아요. 자기 전공 분야를 순수한 마음으로 공부해온 사람, 주변에서 뭐라 건 흔들리지 않고 소신 있게 한 우물만 파온 사람이라면 꼭 한번 바이킹 챌린지에 도전해보길 바라요. 본인이 가진 장점을 최대치로 부각할 수 있는 최고의 기회가 될 테니까요. 꾸준하게 '덕질'해 왔다면 이제 성공한 '덕후'가 되는 건 시간문제예요.

WANTED
2018 바이킹의 인재

바이킹 DNA 체크리스트

용맹
- ☐ 목표에 대한 열망과 승부 근성을 가지고 일을 추진한다
- ☐ 자기실현 욕구를 바탕으로 새로운 도전을 즐긴다

Risk-taking
- ☐ 흥미롭고 가치 있는 일이라면 그에 따른 리스크도 극복할 수 있다

창조적 파괴
- ☐ 현실에 안주하지 않고 기존의 틀을 깨며 도전한다
- ☐ 끊임없는 성장으로 조직의 가치 상승에 기여한다

승리에 대한 열망
- ☐ 자신의 강점을 알고 개발해나갈 줄 안다
- ☐ 자기 분야에서 최고가 되고자 노력하고 성취감을 중요하게 여긴다

#당당한 #침착한 #집념 #꾸준함 #끈기 #덕질 잘하는 #문제를 해결하는

SK 바이킹 챌린지는?

틀에 박힌 취업 스펙에서 벗어나 오롯이 지원자의 스토리와 역량만으로 인재를 선발하는 전형.

2018 바이킹 챌린지 선발 개요 및 일정

01. 서류 접수
3월 8일(목)~3월 23일(금)

02. 오디션
4월 2일(월)~4월 5일(목)
전국 주요 5개 도시(서울·부산·대전·대구·광주)에서 15분 내외 오디션(PT+Q&A) 진행

03. 면접
5월 중 실시 예정

Be Creator

#블록버스터급

#스펙타클

#1억 2천만원

#취업까지

시나리오에서 끝나는 공모전은 CUT!

영상콘텐츠 부문

작품부문
단편영화 / 애니메이션 / 웹드라마

지원자격
아마추어 대학생 및 일반인

제작기간
총 4개월

수상혜택
총상금 9,100만원 (제작지원금 포함)
우수작품 B tv, oksusu VOD상영

역대급 크리에이티브 챌린지

총상금 1억 2,000만원에 도전하라!

www.be-creator.co.kr

작품접수
2018.4.30(월) 18시까지

일상 속 아이디어로 크리에이티브를!

광고콘텐츠 부문

작품부문
영상광고 / 인쇄광고

지원자격
대학생 (재/휴학생)

작품접수
4월 30일(월)까지

수상혜택
총상금 2,900만원
대상, 최우수상팀 SK브로드밴드 공채 서류 면제

B tv oksusu

SK broadband

LG

젊은 꿈을 키우는 사랑

LG Global Challenger 2018

1. **선발인원** **일반부문** 30팀 / **외국인 유학생** 부문 5팀
2. **지원자격** **일반부문** 대한민국 국적 소유자로 국내 4년제 대학교 및 대학원 재학생 / **외국인 유학생 부문** 국내 4년제 대학교 재학중인 유학생
3. **팀 구성** 전공제한 없이 동일학교 재학생 4명으로 구성
4. **지원기간** **2018.04.09(월) ~ 04.18(수)** **www.lgchallengers.com**

탐방비 전액 지원

우수탐방보고서 장학금 지급

수상자 입사 및 인턴 자격 부여